Weekly 공감
녹색은 생활이다
2009 12.09
No.40(통권 141호)
國格을 올리자
로즈란, 세계를 들다
ARS 대기 시간 30초로 줄인다
인기 절정 댄스 뮤지컬 '사춤'
불고기 비빔밥… '우주식품' 됐네
KB 국민은행
GOYANG

실내온도
18~20℃

*온(溫)맵시란? 여름철 노타이 차림의 쿨맵시 캠페인에 이은 겨울철 따뜻하게 옷입기(내복입기, 겹쳐입기) 캠페인입니다.

온(溫)맵시로 따뜻하게
실내온도 20℃!

고유가 시대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겨울철,
내복 착용만으로 체감온도가 3℃ 상승합니다.
온 국민이 내복을 입고 난방온도를 3℃만 낮추면 난방에너지의 20%가 절약되며,
대한민국 전체로는 1조8천억원이 절약됩니다.

대한민국정부 www.mosf.go.kr/hope

배려하고 사랑받는 한국인이 되려면…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요즈음 국가브랜드라는 용어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국가브랜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국가브랜드란 특정한 국가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동안 주로 기업에 적용하던 브랜드의 개념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보다 크게 보면 국가의 품격, 즉 국격(國格)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시장에서 소비자가 브랜드를 보고 물건을 선택하듯이 외국인들은 한국이라는 국가브랜드를 떠올리며 우리 국민이나 우리 기업의 제품,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한다.

국제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안홀트(Anholt)-GMI사의 국가브랜드지수(NBI) 순위를 보면 2009년의 경우 조사 대상 50개국 가운데 한국은 31위다. 이는 세계 15위의 경제규모(2008년 국내총생산 기준)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것이다. 이러한 위상은 해외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올해 1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은 유사한 선진국 제품에 비해 70퍼센트 정도로 저평가된다고 한다. 즉 같은 제품이 'Made in Germany'이면 1백49달러인데 'Made in Korea'이면 1백 달러로 팔리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세계 15위의 경제력, 세계 9위의 교역국에 걸맞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 2백여 국가들 중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그동안 우리는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세운 나라임에도 다른 나라에 대한 원조에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진정한 원조 선진국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인데, 정부는 현재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2015년까지 최소 3배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최근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자국의 경제발전 모델로 활용하려는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사업도 해나가야 한다.

또 한식, 한국어 등 한국적 콘텐츠를 세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매력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해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에 대해 국민들이 마음을 활짝 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한 해에 약 7백만 명이나 되고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는 사람만 1백만 명을 넘어섰다. 국제결혼 비율이 전체 결혼의 11퍼센트에 이르고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글로벌 시민의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 각자가 모두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미소 짓기, 뒷사람을 위해 출입문 잡아주기와 같은 작은 친절과 해외여행지에서 에티켓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국가브랜드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글로벌 시민의식 캠페인을 꾸준히 벌이고 있지만 결국 성공 여부는 국민 각자에게 달려 있다. 내년은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중요한 해다. 우리 국민 모두가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 만들기'의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어보자. G

기획특집

고품격 대한국인 國格을 높이자

46

48

발행일 2009.12.09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溫맵시 뽐내세요
지구도 즐거워요

"병인양요 연구할 시간
1년만 허락된다면 감사하겠어요"

●● 〈Weekly 공감〉 39호(12월 2일자)를 읽고 독자들이 올린 댓글 중에서 공감을 주는 내용들을 모았습니다.

"'원조하는 한국, 세계가 부러워할 일' 기사를 읽었다. 과거 1960, 70년대만 해도 찌들 정도로 최하위 후진국에 속했던 우리나라가 그간 눈부신 경제 발전과 국민소득 증가로 이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로 위상이 변모되어 기쁘기 그지없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절에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직면한 나라들을 원조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세계가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돕고 협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하는 기사였다." _ 우향화

"직지심체요절과 외규장각 도서를 찾아내신 주인공이 박병선 박사님이셨군요. 숱하게 국사를 배워왔지만 박사님이 평생 헌신과 노력으로 찾아낸 문화재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도서관을 찾아가 열람 허가를 요청하는 박사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학자는 도전정신과 끊임없는 집념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1년이 더 필요하시다고 간절히 원하시는 박병선 박사님, 건강을 회복하셔서 우리 역사 연구에 매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_ 지남숙

"'온(溫)맵시 뽐내세요, 지구도 즐거워요' 기사를 통해 추운 겨울철이라도 실내 온도가 섭씨 20도 안팎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좀 산다는 집에서는 겨울철에 실내 온도를 25도로 유지하며 내의만 입고 지낸다고 하는데 이는 에너지 낭비이며 건강에도 좋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갈수록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며 잘 가꾸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너무 풍요롭고 편의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손에게 좀 더 나은 지구촌 환경과 생태계를 물려주기 위해 겨울철이라도 지나치게 난방을 하는 행위를 삼가는 것이 한 방안이라 여깁니다." _ 배을순

●● 〈Weekly 공감〉 38호(11월 25일자) '4대강 살리기' 만화와 관련해 김태정 독자께서 따끔한 질책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Weekly 공감〉을 보며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독자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권위 있는 매체일수록 읽는 이들에게 상처가 될 만한 단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사소한 단어와 문장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11월 25일자 '위클리 코믹스 4대강 살리기'에서 '새엄마'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래동화 '장화홍련'을 모티프로 삼은 것 같은데, 열심히 살고 있는 수많은 재혼가정의 가슴이 아플 수 있는, 또는 가족 간 불신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절름발이' 등의 표현은 정부 잡지에서는 없어져야 할 표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_ 김태정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알립니다

1 "나눔의 기적을 함께합니다" 캠페인

여성부 공익포털 '위민넷(www.women.go.kr)'은 12월 20일까지 소외계층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나눔의 기적을 함께합니다"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이트 방문자의 '포인트 기부하기' 이벤트를 통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 '베풂'을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포인트는 회원 가입 시 1천 포인트, 덧글 또는 게시글 등록 시 10~2백 포인트, '나눔! 아이콘 찾기'를 통해 적립이 가능하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나눔이란 OOO이다' 덧글 이벤트를 통해 참가자 전원에게 사진 인화 상품권을 제공하고, 기부 이벤트 기간 중 최고 기부자 5명에게 사은품을 제공한다.
문 의 02-757-7075 위민넷 고객센터

2 국민 환경 분야 넛지 공모전 '녹색환경을 위해 넛지하라'

환경부는 넛지를 통해 녹색환경을 가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녹색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 환경 분야 넛지 공모전을 개최한다.
'넛지'는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규제행정이나 인센티브에서 벗어나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 15곳에 경고 표지 대신 꽃담을 설치해 불법 투기 근절과 환경 조성에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분야 1) 넛지를 적용하여 환경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례
2) 넛지를 적용하여 환경 분야에서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정책(제도), 개선방안 등
방법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A4 용지 2장 이내로 작성해 e메일(nudgetime@naver.com)로 제출.
기간 12월 31일까지
발표 2010년 1월 25일,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
시상 **대상**(1편, 상금 3백만원과 1백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최우수상(1편, 상금 1백만원과 1백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우수상(2편, 각 상금 50만원과 1백만원 상당의 음식물처리기)
장려상(3편, 각 30만원)
문의 02-3670-1013 환경 공모전 담당자

공감 퍼즐

빈칸의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12월 16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Weekly 공감〉 38호(11월 25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의료관광 3 주문진 4 인력난 6 타미플루 9 비무장지대
세로 1 의리인 2 광주 5 난타 7 미개지 8 승무

〈Weekly 공감〉 38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연경(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변석호(강원 춘천시 온의동)
안원영(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이기성(경남 거창군 위천면)
이하늘(경기 군포시 광정동)

가 로

3. 도약을 하는 중요한 기회나 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OOO이다."
6. 은행에 당좌예금을 가진 사람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줄 것을 은행 등에 위탁하는 증권. "십만원짜리 OO 열 장을 받았다."
7. 행사나 사업 등을 이끌어들임.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세계음식관광축제, 2011년 제19차 유엔 산하 세계관광기구 총회,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 여수세계박람회 등 세계적 대회나 행사를 OO하는 데 성공했다."
9.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 "대한민국이 문화강국, 기술강국, 녹색혁명 선도국가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강한 국가의 OOO를 주고 있다."
10. 원래는 기독교 등에서 전도 임무를 맡은 사람을 말하지만,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전파하거나 홍보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데도 쓰이죠.

세 로

1.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무예를 바탕으로 한 운동. 대한민국 문화 브랜드의 하나가 되었죠. 앞차기, 돌려차기….
2. PKO.
4. 먹으면 몸에 좋은 물.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산에 가서 OO를 받아 오신다."
5.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
8. 반죽한 밀가루에 길쭉길쭉하게 썬 파를 넣어 지진 전.

독자 ♥ 공감

독자들의 단소리, 쓴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자 합니다. 이 코너에 참여를 원하시는 독자는 주소, 연락처와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의 글을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사는 전정민(27) 씨는 이해인 수녀처럼 예쁘고 가슴에 와 닿는 좋은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작가 지망생이다. 글을 응모하기 위해 우체국에 자주 들르면서 〈Weekly 공감〉을 알게 돼 독자가 됐다는 그를 만났다.

● **〈Weekly 공감〉을 구독하게 된 이유는.**

매주 읽다 보니 매일 뉴스를 보는 것만큼 다양한 기사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뉴스보다 더 자세하게 세상 흐름을 읽을 수 있고요.

● **인상 깊었던 기사가 있다면.**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의료관광에 대한 기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외국인을 만나는 빈도가 꽤 높습니다. 기사에 소개된 것처럼 우리의 발전된 의료기술과 준비된 서비스가 외화 획득은 물론 실업 해결에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Weekly 공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Weekly 공감〉을 통해 알게 된 공모전에도 용기를 내어 도전해볼 수 있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각종 공모전과 이벤트 소개의 장을 좀 더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소개를 해주시는 코너가 마련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씨는 "겨울은 노숙자들과 어려운 우리 이웃들의 사연이 더 가슴 아픈 시기"라며 "올겨울은 다시 한 번 주위를 돌아보며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행복한 겨울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공감 ♥ 마당

1. 가장 관심있게 읽은 기사와 이유
2. 이번 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우정렬 부산 중구 보수동

1. '운전면허 이제 하루 만에 딴다' 기사를 읽었다. 하지만 이는 아무리 편의주의도 좋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최악의 교통문화와 높은 교통사고율, 교통안전 문제를 도외시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교통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교통사고나 교통정체 발생을 간과한 채 포퓰리즘에 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폐지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재고돼야 한다. 안전교육도 일본은 7시간, 독일은 22시간인데 우리만 1시간으로 줄이려는 것은 교통안전 불감증이 아닌가 싶다.
2. 에너지 절감 시책에 발맞춰 국민들이 추운 겨울을 좀 더 따뜻하게 잘 지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내복 한 벌을 껴입으라는 내용이 좋았다. 내복을 입으면 국가적으로 에너지가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며 개인적으로도 겨울철에 많이 드는 난방비가 절약된다는 말에 공감했다. 게다가 몸도 든든해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 여러 모로 장점이 많아 나도 올겨울에는 내복 입기를 꼭 실천할 생각이다.
3.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극소화하거나 없애기 위해 기업과 국민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해 재산 및 인명 손실을 막았으면 좋겠다.

강창규 대전 중구 목동

1. '탄력근로제 등 퍼플 잡 만들기' 기사를 보면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의지를 잘 엿볼 수 있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퍼플 잡과 같은 탄력적 근무 제도가 정착된다면 저출산 같은 사회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2. 에너지 절감과 녹색성장이라는 사회적 과제 달성을 위해 내복을 입는 생활 속의 작은 실천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옷맵시가 안 나고 촌스럽다는 옛말도 무색하게 요즘의 내복은 '패션 프렌들리'하고 정말 우아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다. 시간이 날 때, 가족들과 함께 내복 쇼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3. 2010년 새로 바뀌는 제도, 그 입법 취지와 기대되는 효과, 국민들이 주의해야 할 점 등을 다뤄주었으면 한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2월 9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공감마당에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는?
2. 이번 주 기획특집 '품위 있는 국민, 높아지는 國格'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당신의 겨울 바다

하얀 달력 달랑 한 장 남았습니다. 나도 하얀 바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쪽빛 바다와 마주합니다. 바다로 달려오게 한 잿빛 먹먹함은 이내 없어집니다.
시퍼런 해풍은 응어리진 가슴을 씻어줍니다. 저 멀리 새빨간 희망이 솟아오릅니다.

옛 노래가 생각납니다.
겨울 바다로 가자 / 메워진 가슴을 열어보자 / 스치는 바람 불면~.
힘찬 희망을 찾으러 겨울 바다를 찾습니다. '온(溫)맵시' 따스한 내복 입고.

글과 사진 · 이완규(사진가)

경북 경주시 감포바다

대학생의 가능성에 투자합니다
사회인의 능력으로 상환합니다

호텔조리학과 최원준군에게 빌려주고
한식조리사 최원준씨에게 받습니다

경영학과 김다영양에게 빌려주고
해외펀드매니저 김다영씨에게 받습니다

항공기계과 정건우군에게 빌려주고
항공정비사 정건우씨에게 받습니다

반갑다 『든든학자금』

2010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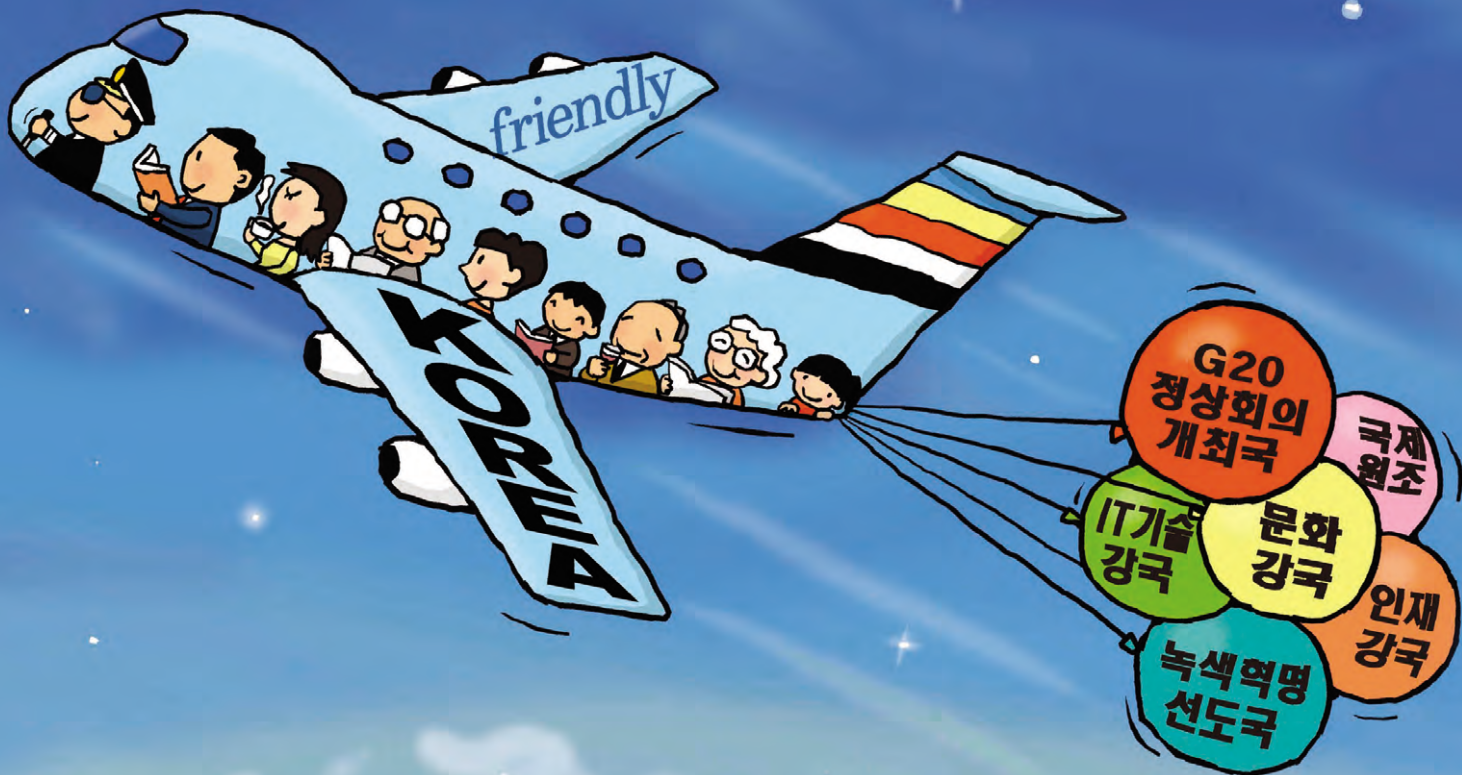
- 대출학자금 상환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 걱정없이 -
- 재학 중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고 -
- 취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이 시작되는 제도

이제, 등록금 걱정없이 꿈의 전원을 항상 켜두세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 대출대상 : 소득7분위(2009년 2학기 기준 연 소득인정액 4,839만원) 이하인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
- 대출금액 :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비 무상지원)
- 상환기준소득 및 상환율 : 상환개시 기준소득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의 100%(2009년 기준 연 1,592만원), 상환율은 20%
- 상환방법 : 취업 후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을 통해 상환

기획특집

한국인, 세계인으로 날자, 날자꾸나

지난 9월 한국은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됐다.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한국,
한국이 걸어온 근대사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하지만 이 가슴 벅차오름이 순간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글로벌 선진국가란 명성을 다지기에는 아직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인격(人格)이 있듯 국가에는 국격(國格)이 있다.
국격을 갖춘 품위 있는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일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이 되는 길,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생활 속에 있다.

國格이 국가 경쟁력이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21조1천억원, 코카콜라 브랜드 가치 82조5천억원. 지난 9월 18일 세계적 브랜드 컨설팅 그룹인 인터브랜드와 미국의 <비즈니스위크>가 공동으로 선정해 발표한 '2009 글로벌 100대 브랜드 가치평가' 결과다.

반도체와 TV 분야에서 세계 1위인 세계적 가전브랜드 삼성의 가치가 아무리 전 세계인이 한 컵씩 마신다 한들 결국은 탄산음료에 불과한 코카콜라의 4분의 1 정도에 그친다는 것은 상당히 '빈정상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브랜드의 힘, 브랜드 가치다. '탄산음료'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가 '명품 가전' 삼성전자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브랜드 가치 때문이다.

브랜드 가치 창출은 기업은 물론 세계 각국의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 소비가 줄수록 브랜드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 인터브랜드는 '2009 글로벌 100대 브랜드 가치평가'를 발표하면서 "불황기에 신뢰성은 브랜드 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바로 신뢰성과 호감도를 바탕으로 한 브랜드 가치를 논할 때 우리나라는 좀 억울한 처지다. 우리나라의 기업과 국가브랜드 가치가 경제순위보다는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2009 글로벌 100대 브랜드 가치평가에서도 순위 안에 드는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19위)와 현대자동차(69위) 두 개에 그쳤다. 지난 10월 초 발표된 안홀트(Anholt)-GMI사의 국가브랜드지수(NBI)에서 한국은 전체 50개국 중 31위였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로만 볼 때 우리나라는 주요 20개국(G20) 중 13위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력'의 요소로 전통적인 군사력, 경제력이 아니라 문화와 교육 등 '소프트 파워'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지금 정치보다는 경제, 명분보다는 실리를 우선하며 일등국가 경쟁에서 선두에 서기 위해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아시아의 신흥 경제대국 중국은 지난해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국격 높이기에 나서며 '팔영팔치(八榮八恥)' 캠페인을 벌였다. 팔영팔치는 2006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내건 '중국인이 적극 실천해야 할 덕목 8가지와 배격해야 할 8가지'다. 국민의식이 고속 성장하고 있는 경제규모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2012년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영국은 '런던, 세계 문화 리더'라는 문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백인 우월주의인 '백호주의'로 대변됐던 호주도 '우호적인' 국가 이미지로 변신에 노력해 이제 손꼽히는 '글로벌 국가'로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다.

"국가브랜드는 해외에서 우리 국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 제품의 가치와 직결되는 문제다. 브랜드 가치가 올라야 사람도 제품도 높게 대접받는다."

2013년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31위에서 15위로

올해 1월 12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국가브랜드를 강조한 뒤 같은 달 22일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통해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1차적인 목표는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 순위를 현행 세계 31위에서 오는 2013년까지 15

다

브랜드 가치 창출은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최근 국가브랜드의 가치 창출이
세계 각국의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력이 아니라 문화적인 가치가 평가받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시대,
국가브랜드 가치는 곧바로 국익과 직결된다.

동아DB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또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 '국민과 함께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비전으로 채택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브랜드 인지도가 1퍼센트 상승할 때 약 12조원의 가치가 상승한다. 국가브랜드위원회 이형호 기획총괄국장은 "최근 국가브랜드 제고 사업의 하나로 범부처적 협조 아래 한·베트남 주간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이미지가 강조된 기존 국가브랜드지수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브랜드지수 개발"이라고 전했다.

"배려하고 사랑받는 대한민국 브랜드 키워나가자"

인터브랜드 한국법인 박상훈 사장은 "강력한 국가브랜드를 가진 국가들은 자국 제품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고, 외국관광객과 해외 투자유치가 활발해져 경기가 활성화 되고 통화 안정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국가브랜드 관리와 강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전략"이라며 "우리의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단발성 프로그램이나 단기정책보다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가 확정된 뒤 이 대통령은 "G20 한국 개최를 계기로 우리의 국격을 높이자"고 다시 한 번 역설했다. G20 정상회의 이외에도 많은 국제 행사들이 한국에서 잇따라 열린다.

최근 카자흐스탄에서는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한 동아시아의 진주, 동아시아의 호랑이'로 지칭되는 한국이 화제라고 한다. 카자흐스탄 최대 일간지 〈카자흐스탄 프라우다〉 신문사가 최근 발간한 한국 소개 책자 〈한국, 기적 아닌 기적〉 덕분이다.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이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에 도약대가 될 수 있다면 한국이 단순한 '동아시아의 호랑이'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품격 있는 호랑이'로 불릴 날이 머지않을 것이다. G

글 · 박경아 기자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는 1조1414억 달러… 세계 10위

우리가 조사한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1조1천4백14억 달러로 세계 10위다. 또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20조원이다.

산업정책연구원이 11월 26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2009 코리아 브랜드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국가, 도시, 기업에 대한 브랜드 자산가치 평가 결과다.

전 세계 40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 평가를 분석한 결과 2009년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40개국 중 10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 순위는 2007년부터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이 10조4천억 달러로 가장 높았고, 독일(6조5천억 달러), 영국(3조4천억 달러) 순이다. 지난해 7위였던 중국은 올해 6위(2조1천억 달러)로 한 단계 상승했다.

도시 중에서는 서울시가 4백47조5천억원으로 국내 주요 7개 도시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시 2위(1백4조원), 인천시 3위(81조3천억원) 등이다.

기업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는 삼성전자가 20조원으로 평가돼 10년 연속 최고 브랜드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조7천억원보다 무려 2배 가까이 상승했다. 현대자동차와 LG전자는 각각 8조원과 7조원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산업정책연구원은 2002년부터 매년 코리아 브랜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가브랜드와 기업 브랜드의 가치평가 등을 연구 발표하고 있다.

동아DB

내년 G20 정상회의 유치로 대한민국 국격을 한 단계 높일 뿐 아니라 세계 경제 발전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순간을 얻게 됐다.

'G20' 코리아 프리미엄 절호의 기회

지난 9월 대한민국의 이름이 다시 한 번 온 세계에 알려졌다. 다른 선진국들을 제치고 내년 11월에 열릴 제5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유치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의장국에다 주최국까지 겸해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코리아 프리미엄'을 알리게 된다.

한 해를 보내면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지만 올해는 좀 다르다. 다가올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있기 때문이다. 2010년은 대한민국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드높일 수 있는 국가적인 행사가 준비돼 있다. 바로 내년 11월 개최될 제5차 G20 정상회의다.

G20 정상회의 유치로 우리나라는 회의 개최뿐 아니라 의제 설정, 토론, 결론 도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의장국에다 주최국까지 겸해 새로운 틀과 판을 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개소식을 가졌다.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그동안 청와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조직을 하나로 모아 11월 9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자 1백여 명이 참석한 개소식에서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부터가 우리의 국격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외교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발전사에 이정표를 만들어내야 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코리아'를 구현하는 데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진두지휘할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의제 개발과 조정 등을 맡는 기획조정단을 비롯해 의전과 행사를 담당하는 행사기획단, 홍보전략과 대외 홍보를 맡는 홍보기획단 등 3개의 실무 조직으로 구성됐다.

"유치 자체가 인정받은 것… 글로벌 코리아 구현에 도움"

정상회의 유치 및 준비 과정 등 국가기록을 남기는 작업도 진행된다. 기획조정단에 백서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백서에는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4월 영국 런던 제2차 회의, 9월 미국 피츠버그 제3차 회의 등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벌인 활동들이 상세히 기록된다. 특히 다른 나라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제5차 회의를 유치하게 된 상세한 상황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G20 정상회의 개최지는 서울로 결정됐지만 주 회의장 후보지 결정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코엑스를 비롯해 대형 국제회의를 치를 만한 시설이 한정돼 있기에 내년 봄 한강에 건립되는 '플로팅 아일랜드(Floating Island)'를 주 회의장으로 활용토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와 관련한 10여 개의 국제회의가 열릴 예정이라 이를 유치하기 위한 시도 간 유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11월 20일 강원 평창에서 열린 제3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여 가지 국제회의가 열리는데 가능하면 지역을 나눠서 개최해볼까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G20 정상회의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파급효과도 가져다줄 것이다. 따라서 준비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 균형을 반영하고 비(非)G20 국가들과의 협조관계도 강화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이어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내년 2월 27, 28일 예정된 G20 재무차관회의를 인천 송도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박기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 사무관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재무장관회의, 재무차관회의, 셰르파 회의, CEO 포럼 등 관련 회의가 많은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 배분 개최 문제를 추후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충청포럼은 'G20 정상회의 개최 의의와 준비방향'이라는 주제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을 초청했다. 이날 유 장관은 "G20 정상회의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파급효과도 가져다 줄 것"이라며 "G20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 균형을 반영하고, 비(非) G20 국가들과의 협조관계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내년 10여 개 국제회의 개최… 지역 배분 개최 논의 중

2010년 G20 정상회의 유치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각종 국제대회도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먼저 G20 정상회의와 같은 시기에 열리는 '세계음식관광축제'가 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식 세계화'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한국방문의 해'와 엇물려 열리는 이 대회는 지역 음식과 관광자원을 국내외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 '한식'으로 대표되는 고장 전북에서 개최되며 전주 발효식품엑스포, 전주 비빔밥축제, 부안 젓갈축제 등 다양한 행사와 연계돼 열릴 예정이다.

2011년에는 한국 관광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도와줄 제19차 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가 개최된다. 1975년 창립된 UNWTO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총회는 1백54개 회원국 장관급 정부 대표와 3백50여 개의 관광 관련 기구 대표 등 5백여 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장관급 대표회의다. 아직 개최 도시나 일정은 미정이지만 UNWTO 총회 개최는 한국 관광의 이미지 제고와 컨벤션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1년에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대구에서 열린다. 2007년 3월 육상 불모지나 다름없는 대구가 세계의 육상 강호 러시아와 호주를 따돌리고 당당히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대구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상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2012년에는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제주에서 열린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자연 보전, 생물 다양성,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 문제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4년마다 한 번씩 회의를 열기에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여수세계박람회가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간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을 주제로 개최된다. 세계박람회(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에 속하는 국제행사로 여수세계박람회는 국격을 높이는 대표적인 행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동아DB

11월 23일 서울 한국금융연수원에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개소식이 열렸다.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내년 11월까지 총력을 다해 준비할 예정이다.

국외에서 개최될 대한민국 국격 높이는 행사

내년에도 많은 국제회의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열린다. 그중에서 대한민국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회의 일정을 소개한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회의 시작 전에 알려질 예정이다.

국제기구명	내용	일정	개최국	개최도시
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재무장관회의	2010.4 예정	스페인	미정
ADB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2010.5.3~5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EBRD	유럽부흥개발은행 연차총회	2010.5.14~15	크로아티아	미정
AfDB	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2010.5.27~28	코트디부아르	미정
IMF/WB	국제통화기금·월드뱅크 연차총회	2010.10.19~21	미국	워싱턴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2010.11 예정	일본	요코하마

법질서 바로 세워야 선진 한국

편하고 아름답고 자유로운 세상 만들자

법무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내년까지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수준을 세계 20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문화를 포용하고 글로벌 에티켓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노사관계 선진화도 국격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다.

#1 인적이 드문 한밤중 어느 동네 골목. 복면을 쓴 채 으슥한 구석에 검은 비닐봉지를 내려놓으려던 사람이 이웃 할머니에게 덜미를 잡힌다. 엄연히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라고 쓰인 장소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려다 들킨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의 텔레비전 공익 광고다.

#2 철도 파업이 일주일째로 접어든 12월 2일. 대체인력이 투입돼 있지만 여전히 여객 및 화물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운행 횟수가 평소의 60퍼센트 수준으로 줄어 승객들의 불편은 여전하다. 화물열차는 평소의 4분의 1 수준인 76대만 운행하고 있어서 물류 수송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12월 2일자

쓰레기 무단 투기, 음주 소란, 불공정 거래, 사이버 불법 복제와 악성 댓글, 불법 파업….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보이는 법질서 위반 사례는 수두룩하다. 지난 7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 수준은 형편없다.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한국의 법질서 준수 수준이 27위로 꼴찌에 가깝다고 밝혔다.

사이버상의 법질서 준수 수준도 높지 않다. 지난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인터넷 법률 준수, 인터넷 예절 등을 측정해 발표한 우리나라 정보문화지수는 1백점 만점에 61점이며, 사이버 범죄 검거 건수도 2008년에 12만2천여 건으로 2006년에 비해 73퍼센트 증가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법질서가 제대로 지켜지는 나라일수록 국제 경쟁력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6월 법무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제2회 법질서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대니얼 카우프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기조연설에서 "법치와 부패 통제 등이 글로벌 경쟁력의 관건"이라며 "칠레와 아일랜드는 법치 선진화와 국정 운영 개선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이 세 배 정도 오르는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날 차문중 KDI 연구원은 '법질서와 안정적 경제성장'이라는 주제 발

법무부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의 하나로 법무부가 추진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에서 입상한 가족들이 김경한 법무부 장관(중앙 오른쪽)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 등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표에서 "1990~2006년 세계 주요 국가의 법질서 수준과 경제 성장을 비교해보면 1인당 국내총생산이 높은 나라일수록 법질서 준수 수준도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법질서와 시민의식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법질서 바로 세우기 △글로벌 시민의식 향상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법질서 · 시민의식 높이는 범국가적 사업 추진

법질서 확립은 선진사회 진입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11월 27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의 신임 경찰 졸업·임용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법질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사회간접자본이자 선진화의 핵심 인프라이며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기 회복, 일자리 창출, 사회 통합,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법질서 바로세우기를 실천하기 위해 2008~2012년 5개년 계획을 세워 4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1단계 법질서 준수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으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16개 지자체와 법질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교통질서, 먹을거리 안전 등 지역별 중점 과제에 대해 실천 운동을 전개했다. 또 사이버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와 50여 개 인터넷 관련 민간단체가 협력해 '사이버 질서 지키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내년을 법질서 도약·확산 단계로 설정해 시급한 5대 현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설정한 '국격 제고를 위한 법질서 선진화 방안(가칭)'에 따르면 △교통질서 △사이버질서 △공공질서 △시위질서 △노사문화 등이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법질서 분야로 꼽혔다. 법무부는 OECD 30개국 중 27위인 한국의 법질서 준수 수준을 내년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시점에는 20위권, 2012년에는 9위권으로 진입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국가브랜드에 큰 영향을 주는 척도로 글로벌 에티켓, 다문화 존중, 외국인 배려 등 성숙한 글로벌 시민의식을 꼽고 있다. 글로벌 에티켓은 온·오프라인에서 타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청결과 줄서기 등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외국인 환대 서비스 개선 캠페인, 글로벌 관광 에티켓 지수 개발,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 등의 범국가적 사업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를 포용하고 외국인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일자리 지원, 자녀의 학습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2006년 전국 21곳에서 올해 1백 곳으로 크게 늘었다.

동아DB

철도 파업 나흘째인 11월 29일 시민들이 서울역에서 시간표를 살피며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노사관계의 성숙도도 국격과 높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1천명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는 67.5일(2003~2007년 연평균). 이에 비해 OECD 평균 근로손실 일수는 31일(2002~2006년 연평균)로 절반 수준이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06년 OECD 평균이 38달러인데 비해 같은 해 한국은 20.4달러에 불과하다.

내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법질서와 시민의식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법질서 바로 세우기 △글로벌 시민의식 향상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관계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의식도 호의적이지 않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3백 개 기업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 피해와 정책 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16.4퍼센트가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했다. 또 지난 9월 16일 노동부가 전국의 만 20~65세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사관계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65퍼센트로, 협력적이라는 답변(4.6퍼센트)에 비해 압도적이다.

정부는 노사관계를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뛰어넘어 안정되고 협력적인 관계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로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노사관계 평가를 공공기관 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전임자 급여 지급제도 개선 및 복수노조 허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G

글 · 최은숙 기자

원조하는 코리아가 세계를 이끈다

개도국 정책 컨설팅 등 체계적 원조 늘려야

우리나라의 국가 인지도와 위상은 경제 규모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 이에 정부는 국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다. 특히 세계 원조 기여, 글로벌 리더십 강화는 한국의 국가 인지도를 높이고 위상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DB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캄보디아 시엠립의 톤레삽 수상가옥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11월 25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정식 회원국이 됐다. DAC는 세계의 핵심 공여국 22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전 세계 원조의 90퍼센트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DAC 가입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격을 한 단계 높인 외교사적 의미를 지닌다. 6·25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이던 우리나라는 한동안 국제원조에 의지해 살아왔다. 하지만 DAC에 가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수원국(受援國)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공여국으로 바뀌었다. 1961년 OECD가 설립된 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은 한국이 최초다.

이에 따라 1963년 설치돼 46년 동안 한국에 대한 원조사업을 관장해왔던 유엔개발계획(UNDP) 한국사무소가 12월 말로 문을 닫는다. 대신 UNDP 서울정책센터가 문을 열어 아시아 지역의 원조정책을 담당할 예정이다.

DAC 가입을 계기로 정부는 대외 원조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08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는 8억 달러 안팎(1인당 16달러)으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이 0.09퍼센트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를 2015년까지 0.25퍼센트로 3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공적개발원조 부서' 신설 방안 검토도

또한 ODA를 아시아와 최빈국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효과 없는 원조 대신에 임팩트가 있는 원조전략을 펴나가겠다"며 "최빈국에 대해서는 인도적 측면에서 지원하되 효과를 감안해 맞춤형으로 건설이나 인적자원 개발, 성장 경험 전수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조직개편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ODA국은 우리의 개발도상국 경험을 살려 원조 수혜국과 '윈윈'하는 한국형 ODA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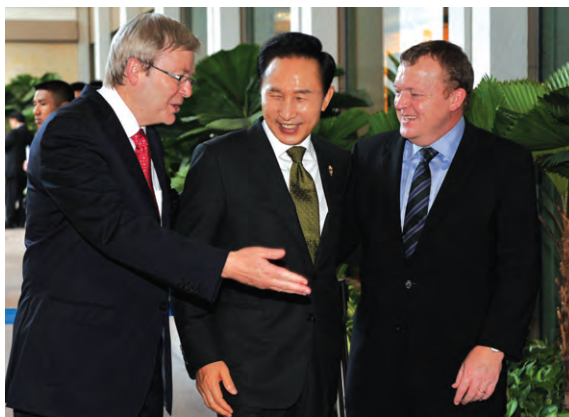
한편 아프리카에서 절대빈곤을 없애고 기초교육과 위생 등에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에 기여하는 원조정책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1월 압둘라예 와드 세네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향후 3년간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아프리카 연수생을 2012년까지 5천명 초청하고 자원봉사자 1천명을 파견하며 녹색산업 분야에서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원조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우리의 국격을 높이고 있다. 예를 들면 핵심 전략국가로 선정해 포괄적 정책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베트남에 집중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엔 3개국, 2011년엔 4개국으로 점차 늘려 지원한다.

이 밖에도 개도국 경제정책 수립 과정에서 우리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정책 자문을 해주는 'Shaping the Future with Korea' 프로그램, 세계 각국과 우수인재를 교류하기 위한 '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램,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정보기술(IT) 기반과 교육정보화 발전 경험을 나눠주는 '한국형 e러닝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5월 해외자원봉사단을 'World Friends Korea'로 통합 브랜딩한 것도 정부의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다. 해외자원봉사단은 올해 전 세계 56개국에 3천7백30명이 파견되는데 앞으로 그 수를 더욱 늘려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국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평화유지활동(PKO)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유엔의 대표적인 활동이다. 우리의 PKO 참여 수준은 국력과 위상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유엔 PKO 예산 분담 수준은 세계 10위(2009년 1억5천만 달러 수준)이지만 8개 유엔 PKO 미션에 4백여 명이 파견돼 있어 세계 38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 PKO 참여 규모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하기로 하고 'PKO 참여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G

글 · 최호열 기자

동아DB

11월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케빈 러드(왼쪽) 호주 총리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오른쪽) 덴마크 총리의 영접을 받으며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폭 넓은 글로벌 행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유치 이후 우리나라를 대하는 국제사회의 태도는 달라졌다. 과거 '코리아 디스카운트'였던 것이 이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신흥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가교 역할을 해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G8 확대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서 제기한 세계 금융위기 해법,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감축안들은 세계 정상들의 주목과 지지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외교에서도 성과를 높였다. 미국과는 '21세기 국제환경에 부응하는 전략동맹', 일본과는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동반자 관계', 중국 및 러시아와는 각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합의하는 등 모두 진일보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특히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의 무기구매국(FMS) 지위를 격상시키는 등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신(新)아시아 협력 외교'를 통해 그동안 4대 강국에 집중됐던 외교 지평을 넓혔다. 올해 3월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3개국을 방문해 '신아시아 협력 외교'의 기틀을 다진 데 이어, 5월에는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카자흐스탄공화국과는 에너지 자원, 산업, 인프라 등 9건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6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해 한 · 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 체결이라는 '경제협력'과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한 '안보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10월엔 '신아시아 외교'의 주요 거점국가인 베트남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2015년까지 교역액을 2백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협력을 다졌다.

이 밖에도 지난 10월 세계 최대 경제시장인 유럽연합(EU)과 FTA 협정문에 가서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미국, 인도, EU로 이어지는 세계 주요 경제권과 시장 통합을 이루게 돼 명실상부한 FTA의 축으로 발돋움했다. 특히 세계 양대 경제권인 미국, EU와 FTA를 타결한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정보기술(IT) 등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는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 IT쇼' 전시장.

경제력 넘어 이젠 문화·기술·인재…

"문화 경쟁력이 한국을 발전시킬 것이다. 한국은 이웃 나라 중국, 일본과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훌륭한 예술가들도 많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국민과 모두 협력해 조화를 이룰 때 국가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대표적 지한파(知韓派)인 프랑스 소설가 르 클레지오(69)는 문화 경쟁력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 문화 경쟁력은 우리의 국가브랜드 파워를 키우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 5위의 정보기술(IT) 능력과 각국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인재, 유엔환경계획(UNEP)이 인정한 녹색뉴딜 정책 등도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국격은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은 하드 파워가 커진다고 해서 향상되지 않는다. 그 나라의 질적 수준과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문화, 기술, 인재 같은 소프트 파워가 함께 세져야 비로소 국격도 높아진다. 정부가 국제사회에 문화강국, 기술강국, 인재강국, 녹색혁명 선도국가로서의 한국을 인식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화를 통한 국격 제고 태권도·한식 등 세계화 힘써

문화를 통한 국격 제고 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장기적으로 외래 관광객 대상 범국민 환대 서비스, 태권도 세계화 및 브랜드화, 한국 문학의 세계화, 품격 있는 고궁 관광자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외래 관광객 대상 범국민 환대 서비스는 '한국방문의 해' 기간인 내년부터 2012년까지 전개된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신의 미소로 한국을 선물하세요'라는 캠페인 슬로건을 내걸고 언론사와 공동으로 연중 환대의식 개선 캠페인을 벌일 방침이다.

2011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한국 문학의 세계화는 대표작가의 작품을 집중 번역하고 우수 작가들의 국제 교류를 강화해 노벨문학상 등 국제문학상 수상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품격 있는 고궁 관광자원화는 올해 말까지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 내용의 경중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한국어 보급 확대를 위한 세종사업에 힘쓰고 있다. 세종사업은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규범 정비, 표준국어대사전을 확대 개편한 '새한글사전' 편찬과 웹2.0 기반의 위키피디아형 사전 구축,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한글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내년에 한글 보급 기관을 '세종학당'으로 통합해 대표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합 원격학습 통합체계인 'U-세종학당'도 구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식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다. 한식 세계화는 지난해 10월 '한식 세계화 선포식'을 계기로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돼왔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에서 외식산업진흥법 제정 등 한식산업 기반 구축, 한식 요리명장 양성, 스타 한식당 육성, 한식 체험 기회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해외에서는 한식 세계화 연구개발(R&D) 확대, 국산 식재료 공급 활성화, 한식 이미지 제고, 한식문화 알리기, 한식 브랜드 육성에 힘쓰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5월 열리는 상하이엑스포 참가를 위해 중국 현지에 국가관, 기업연합관, 서울시관을 설치 중이다. 또한 민관합동지원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지원활동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상하이엑스포를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한중 우호협력을 증진하는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상하이엑스포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유도하는 데도 중요한 교두보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IT 코리아 미래전략' 제시… 국가적 역량 결집

정부는 지난 9월 I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T 코리아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IT 코리아 미래전략은 IT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선, 에너지, 자동차 등 10대 전략산업 창출 △글로벌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의 세계 1위 달성 △편리하고 앞선 방송통신 서비스를 위한 와이브로, IPTV, 3DTV 시장의 조기 활성화 △안전한 초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5대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은 올해부터 2013년까지 총 1백89조 3천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정부는 세계 최고 품질의 한국 제품을 대한민국 명품으로 세계에 홍보해 지속적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명품 브랜드 발굴을 위한 해외 선호도 조사와 국민공모가 실시됐다. 11월에는 공모와 신청을 통해 접수된 총 80건의 후보 중 대기업 6건, 중소기업 10건이 'Advanced Technology & Design Korea'라는 명품 브랜드로 선정됐다.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애경, 웅진코웨이가 최종 선정됐으며 중소기업 중에서는 락앤락, 동양매직, 쿠쿠전자, 바텍, 로만손, 골프존, 트렉스타, 퍼시스, 씨네우드엔터테인먼트, 듀오백코리아가 뽑혔다. 이들 명품 브랜드는 앞으로 인천국제공항 상설 전시관 및 해외 전시관 내 한국관, 방송과 언론매체,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국가브랜드 구축을 위한 홍보용 콘텐츠로 활용된다.

국제무대에서 기업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보증 브랜드를 신규로 70개 기업에 부여하고 보증제품의 해외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미국 시카고, 영국 런던, 중국 칭다오,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세계 일류 한국상품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한국음식관광협회가 지난 10월 주최한 전통음식문화전에 참석한 외국인들이 수라상과 교자상을 둘러보며 시식하고 있다.

인재 강국

해외 취업 기회 확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사업 전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사업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해외 취업 5만명, 해외 인턴 3만명, 해외봉사 2만명 등 총 10만명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범정부적인 프로젝트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글로벌 청년리더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종합정보망 '글로벌 점프(www.globaljump.go.kr)'를 개설했다. 글로벌 점프는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 14개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실시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또 해외 취업과 인턴 등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프로그램 경험자와 현지 경험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공간도 별도로 마련했다.

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김선재 사무관은 "월평균 1만5천명이 글로벌 점프를 찾고 있다"며 "글로벌 인재는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동력이므로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돼 청년실업 해소와 해외 진출에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세계 오지를 누비는 한국국제협력단

18년간 70개국서 나눔과 봉사

11월 25일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 대열에 들어선 데는 18년 동안 세계 각국 오지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온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이 크다.

"수로가 없을 때는 농사를 거의 지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쌀 수확량이 많아지고 소득도 크게 늘었어요." 비옥한 논을 바라보는 농민 팔린자이 씨의 표정이 환하다.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은 세네갈의 외딴 시골 마을 포도르(Podor)에도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이 지역의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3개년 농지조성 사업이 내년 3월 마무리되면 연간 5만여 명분의 쌀 5천여 톤이 생산된다.

세네갈의 식량 사정은 척박하다. 오랜 가뭄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황무지로 변했고, 식량 자급률은 30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1천1백만 국민 중 2백만여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KOICA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해 지난해부터 2010년까지 '관개수로 개선 사업 및 농업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새로 뚫리는 농수로 길이는 총 56킬로미터, 그 옆에 조성될 논은 3백만 제곱미터에 달한다.

KOICA의 정락명 관개전문가는 "농수로는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원 확보에도 요긴하다"고 말했다. 마마두 뎀브 세네갈 하

KOICA

지난 1월 KOICA는 라오스 비티엔안주에서 수로를 건설하는 착공식을 했다.

천개발청장은 "KOICA의 지원으로 새로운 세네갈을 만드는 사업이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세계 구석구석에서 벌이는 KOICA의 활동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09년 12월 현재 세계 42개국에서 활동 중인 KOICA 봉사단원은 1천6백여 명. 1992년 도미니카에 첫 봉사단원을 파견한 이래 18년 동안

KOICA

지난 4월 농업 생산성 개선 사업지인 세네갈의 다가나 마을에 자원봉사를 온 KOICA 단원들이 현지 어린이들과 함께 손을 흔들고 있다.

KOICA가 보인 성과는 눈부시다. 지금까지 세계 70개국에서 총 4백95개 프로젝트가 시행됐으며, 현지인들의 지속가능한 삶에 기여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중 최근 큰 성과를 거둔 예로 캄보디아의 물 관리 사업, 페루와 콜롬비아의 병원 건립 지원,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조림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캄보디아 밧데 지역에서는 제방을 쌓아 마을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줬다. 수도에서 3백 킬로미터 떨어진 밧데는 땅은 비옥한데 물 관리를 못해서 1모작밖에 못하던 곳이다. KOICA는 이곳에 14킬로미터 길이의 제방을 건설해줌으로써 3모작이 가능해져 농민 소득이 크게 늘었다. 페루와 콜롬비아에서는 병원 건립이 활발하다. 페루에서는 5개 산부인과 병원을 지었고, 콜롬비아에서는 6·25전쟁에서 부상한 군인들을 치료하기 위해 재활치료 병원을 지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원조'도 활발하다. KOICA는 2000년대 초부터 중국과 합작으로 내몽골과 베이징 근교에 숲을 조성해 사막화 방지 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한국의 선진 산림경영 시스템을 도입한 이 조림지들은 사막화 방지는 물론 동아시아의 황사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부터 총 사업비 5백만 달러를 투자해 5년 계획으로 열대림 종자 관리 및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 봉사 넘어 7개 분야 수준급 전문가 파견도

이처럼 KOICA의 원조 범위는 단순 봉사를 넘어 전문 영역으로 확대 중이다. KOICA의 김정훈 홍보관은 "단순 봉사자보다는 교육, 보건의료, 행정, 농촌개발,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등 7개 분야에서 수준급 전문가의 파견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KOICA의 사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지원' '유엔 천년개발목표 등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 동참' '인도주의적 지원 강화'가 그것이다. 지원 대상 국가에도 원칙을 정했다.

첫째 한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준 국가로, 6·25전쟁 참전국인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필리핀 등이 그 예다. 둘째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국가, 셋째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처럼 자원 외교를 할 수 있는 자원 부국들이다. 또 중국처럼 국제 정세를 고려한 전략 국가도 포함된다.

향후 KOICA는 정부의 녹색성장 취지를 살린 '녹색원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제창, 2012년까지 동아시아 저탄소 정책 지원 등에 2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올해 예산으로 4천만 달러가 KOICA에 위임돼 집행되고 있다. KOICA는 개도국들에 국내 태양광이나 풍력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공급 방식의 원조를 타진하는 등 경제효과를 고려한 녹색원조를 추진 중이다. G

글 · 최은숙 기자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해외 원조로 국가 이미지 선호도 높여"

동아DB

30년 경력의 외교관 출신으로 지난해 정부 차원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총괄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을 맡은 박대원(62) 이사장은 "인색한 부자가 인격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국제 원조를 잘하지 않는 나라는 국격(國格)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해외 원조 확대는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의의는.

한국이 DAC 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함께 책임도 커졌습니다. 22개 선진국이 가입한 DAC는 전 세계 원조의 90퍼센트를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으나 그 산하 기구인 DAC에는 한국이 제공한 공적개발원조가 유엔의 권고치(국민총소득의 0.7퍼센트)나 DAC 평균치(국민총소득의 0.3퍼센트)에 미달해 가입이 미뤄진 거죠. 하지만 한국 정부의 해외 원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 원조 예산 증액 약속 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이끌어냈습니다.

DAC 가입에 따라 늘어나는 해외 원조액과 KOICA의 예산은.

DAC 가입에 따라 한국은 현재 국민총소득 대비 0.09퍼센트인 원조 예산을 2015년 0.25퍼센트까지 늘리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이는 국민소득을 2만 달러로 잡을 때 국민 한 사람당 5천원 정도의 부담입니다.

KOICA의 올해 예산 규모가 4천억원 규모인데, 이를 1조원 규모로 늘려야 대형 프로젝트도 벌일 수 있습니다.

DAC 가입과 해외 원조 확대로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우선 DAC 가입 후 눈에 보이는 효과로는 한국도 1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제입찰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이 원조를 하는 대신 한국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타이드(tied) 원조'를 활용하면 상당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해외 원조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한국산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도 좌우합니다. 나아가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자원을 확보하는 데도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KOICA 원조 방식의 강점은.

물량 위주의 선진국 원조와는 달리 KOICA의 원조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얻은 값진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해준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현재 농업기술, 정보기술(IT), 보건의료, 한국어 교육 등이 개도국 원조 수요가 많은 분야입니다.

IT의 경우 올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부 파견 해외 봉사단을 '월드 프렌즈 코리아(World Friends Korea)'라는 브랜드로 통합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1만여 명의 해외 봉사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만에 '2011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하게 됐다.

동아DB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태권도의 오늘과 내일

"190개국 7천만 네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을 만나면 꼭 묻는 게 있다.
'태권도'를 잘하냐는 것이다. 태권도 종주국이기에 발차기,
앞지르기쯤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11월 방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태권도를 선보여
화제가 됐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성장한
태권도의 오늘과 내일을 알아봤다.

꼭 10년 만이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2001년 제주대회에 이어 2011년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지난 11월 29일 이집트에서 열린 회의에서 세계태권도연맹(WTF) 집행위원회는 경주가 2011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2011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경북 경주시가 단독으로 신청했다. 이번 대회는 1백50여 개국에서 선수, 임원 등 1만여 명이 참가해 8~11월 중 8일간 열전을 펼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축제가 될 전망이다.

태권도는 현재 전 세계 1백88개국 7천만명이 수련하는 글로벌 스포츠다. 태권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태권도의 연원은 고대 부족국가의 제천행사인 영고, 동맹, 무천 때 체육활동으로 행해졌던 제전경기와 고구려의 고분에 그려진 풍속도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국제 스포츠계 태권도 위상 나날이 높여

1945년 8·15광복 이후 크게 보급 발전되기 시작한 태권도는 1954년 고유 명칭인 태권도로 불리게 됐다. 이후 1986년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정식 경기종목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에서는 시범 경기종목으로, 2000년 시드니올림픽대회에서 정식 경기종목으로 채택됐다.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태권도는 지난 3월 국가브랜드위원회의 국가브랜드 10대 과제 중 하나로 채택될 만큼 기대가 크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지난 7월 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보고회의를 가지면서 '태권도의 명품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태권도가 대한민국 브랜드를 높이는 데 있어 문화 전파 효과가 크고 문화·관광산업 콘텐츠로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태권도가 세계인의 스포츠로 자리 잡으면서 회원국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하계올림픽 종목 중 회원국 규모가 10위로

트워크 묶어야”

우뚝 섰으며,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규모도 지난 2007년 1백16개국 8백65명에서 올해는 1백42개국 9백28명으로 늘어났다.

국제 스포츠계에서도 태권도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문대성 선수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으로 당선됐고, 지난 10월 2016년 올림픽에서 태권도의 종목 유지가 결정됐다. 또 조정원 총재가 과반수를 훨씬 넘는 표를 획득하며 WTF 총재에 재차 당선되기도 했다.

이런 성과에는 WTF의 노력이 함께했다. 태권도 경기의 박진감을 더하기 위해 지난 2월 경기장 크기를 축소하거나 기술에 따른 차등 점수제, 10초룰 도입 등 규칙을 개정했다. 또 경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 대회에서 전자 호구를 사용하거나 즉시비디오판독제를 도입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도 태권도를 즐길 수 있도록 세계장애인대회를 올해 6월 개최하기도 했다.

문화·관광상품화 등 산업화 정책 뒤따라야

정부도 태권도의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2007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 다음 해에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태권도 공원과 상설 공연장 건립, 재외공관의 태권도 현지 보급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태권도의 핑크빛 미래를 점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태권도 단체나 종주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WTF,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국외에선 WTF와 국제태권도연맹(ITF)의 힘겨루기로 제대로 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해외 태권도장의 90퍼센트 이상이 국기원과 별개로 운영되며 태권도 사범 간 네트워크 활용도 미흡한 실정이다. 중국의 쿵푸나 일본의 가라테 등 유사 종목에 비해 문화산업이나 관광 상품화 개발이 덜 돼 있어 태권도가 국가브랜드로 완벽하게 정착할 수 있는 산업화 정책도 필요하다.

이에 지난 12월 2일 태권도를 게임으로 만든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게임업체 엠게임과 국기원이 '태권도'를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오는 2010년부터 15년까지 태권도 관련 정보를 토대로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만화 등의 문화 콘텐츠를 완성할 계획으로 2010년까지 태권도 캐릭터 개발을 완료해 2012년 이를 주인공으로 한 온라인 게임을 제작할 예정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동아DB

태권도는 우리나라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전 세계 1백88개국 7천만명이 수련하는 글로벌 스포츠다.

이대순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청소년 가치관 정립 등 무도 정신 강화”

태권도가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태권도는 봉사와 열정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입니다. 또한 태권도가 지니고 있는 속성, 즉 신체 단련뿐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 추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권도는 다른 스포츠와 달리 인간의 기본 예절과 상호 존중 및 신의를 소중하게 하는 가치 지향의 무도 성격이 바탕이 돼 있어 인성교육에 가장 적합한 스포츠입니다.

앞으로 태권도가 뛰어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전통적인 무도를 현대적 스포츠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올림픽 스포츠로서의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육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나 심판, 선수들에게 올림픽 스포츠에 적합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올림픽 스포츠화가 되면서 경기 승패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무도 본래의 정신을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대표적인 노력을 소개해주십시오.

앞으로 태권도 공원에 세계태권도아카데미(World Taekwondo Academy)를 설립하여 교육 훈련을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WTA는 최고의 태권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 태권도의 근본정신과 철학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설립될 전문 태권도 교육 · 연구 및 수련 기관입니다. 태권도의 올바른 정신과 기술을 보급하고, 올림픽 스포츠 정신의 확산을 실현해 올림픽 스포츠로서 태권도의 위상을 높일 것입니다.

세계 속의 태권도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지요.

먼저 올림픽 스포츠로서 가장 모범적인 경기종목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태권도를 통해 전 세계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에 기여하고 인성 교육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태권도는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스포츠로서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세계 인류의 생활 스포츠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태권도 세계화 명품화 갈 길이 바쁘다

태권도가 우리 문화와 정신적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는 최고의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태권도 덕에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거나 직접 방문하고, 우리 기업의 상품을 사는 외국인들도 늘고 있다. 주(駐)프랑스 한국대사관이 2008년 조사한 설문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일반인은 27퍼센트에 그친 반면 태권도 수련인은 86퍼센트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중심으로 태권도가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1 태권도 사범 · 시범단 평화봉사단 등 파견 확대

태권도는 한국과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가장 좋은 소재다. 오래전부터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전 세계 태권도 보급에 주력해 현재 태권도 인구가 세계 1백90개국 7천만명에 이를 정도다. 하지만 아직도 태권도가 알려져 있지 않은 곳들이 많다. 주로 개발도상국과 오지의 국가들이다.

정부는 태권도의 상업적 진출이 어려운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한 태권도 사범 및 시범단, 평화봉사단 파견을 더욱 확대한다. 이를 통해 태권도의 저변을 확대하고 한국과 한국문화를 알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들은 해당 국가의 정·관계 및 스포츠계 주요 인사와의 인적 네크워크를 이뤄 민간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와의 우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2012년까지 26개국에 사범을, 31개국에 시범단을, 20개국에 태권도 평화봉사단을 파견하기로 상대국들과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또한 세계 최대 태권도시장인 미국에 해마다 90명 내외의 글로벌 태권도 인턴을 파견하기로 했다. 태권도 인턴들은 6개월 미만 동안 현지 학교나 태권도장에서 일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식 교육·연구 기관으로서 세계태권도아카데미(WTA)를 2013년까지 개설하고 해마다 태권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또한 대륙별·지역별로 태권도 훈련센터를 설립하고, 해외 태권도 선수와 코치의 국내 연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태권도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각국 국내올림픽위원회(NOC) 위원,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명예 단증을 수여함으로써 태권도를 알리는 일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동아DB

외국인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2 전문가 · 태권도 단체 협조체계 구축

현재 태권도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부재라는 고민을 안고 있다. 해외 태권도시장의 90퍼센트 이상이 국기원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태권도 사범들 간의 네트워크 활용도 미흡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 단증을 발급하고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전문가 자문 및 태권도 단체와의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 도장과 수련 인구 등 세계 태권도 현황을 파악해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관련 콘텐츠를 확충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태권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내년 중에 온라인상에 '(가칭)태권도 사이버월드'를 개설해 국내외 태권도인, 단체, 도장 간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표준 태권도 교육 콘텐츠,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태권도 사이버월드'는 다국어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세계태권도한마당, 국제태권도지도자포럼 등의 행사를 통해

세계 청소년 태권도 캠프에 참가한 세계 각국의 태권도 수련 청소년들(위).
세계 태권도인의 요람이 될 무주 태권도공원 조감도. 지난 9월 4일 기공식이 열렸다.

동아DB

태권도 네트워크도 강화하며 정보기술(IT) 기반 태권도장 경영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등 해외 도장교육의 세계화를 지원해 태권도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와 태권도 관련 단체들은 태권도의 비전과 정체성을 공유하고 태권도 홍보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 브랜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태권도 통합 브랜드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3 태권도 행사 한류관광 핵심 사업 육성

정부는 태권도를 한류관광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태권도 수련 청소년들의 국제 축제행사인 세계 청소년 태권도 캠프,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 태권도의 날(9월 4일) 행사 등 세계적인 태권도 행사를 통해 세계 태권도인들을 한국에 오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희궁에서의 태권도 시범과 해외 태권도 시범 공연을 확대하는 한편 태권도에 퍼포먼스, 음악, 춤, 스토리를 가미한 창작 공연물을 개발 육성해 문화상품화할 것을 추진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연을 해외 주요 페스티벌 등에 참가시키는 등 세계 순회공연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태권도를 소재로 한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간인 태권도 상설 공연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상설 공연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해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컨벤션센터를 증축 리모델링해 만들 계획이다.

전북 무주에 들어서는 태권도공원은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이자 태권도를 주제로 한 세계적인 문화 관광 명소가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4일 태권도인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진 태권도공원은 2013년 9월 개관할 예정이다. 2백31만4천 제곱미터 대지에 2천3백61억원을 투입해 건설되는 태권도공원에는 수련과 연구, 경기를 위한 시설, 문화산업 및 관광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한 2017년까지 민간자본 3천6백49억원을 들여 호텔과 유스호스텔, 한방기공 단지 등이 조성된다.

태권도공원은 태권도 정신을 뜻하는 으뜸 원(元), 태권도 품새를 상징한 근원 원(原), 9곡 8경을 담아낸 마당 원(園)을 핵심 테마로 꾸며진다. 또 천지인(天地人)을 상징하는 3태극 문양으로 태권도 경기장(5천 석 규모)이 건설되고, 연수원과 연구동 등의 시설은 태권도 품새를 이야기 소재로 만든 체험형 스토리 라인을 따라 건설된다.

상징지구에는 고단자 기념 공간인 태권전과 명인·사범·수련관이 들어선다. 교육수련지구에는 야외 수련장과 태권도대학원, 다목적 운동장, 야외무대 등이, 문화관광지구에는 태권도 전시관과 품새 조각마당, 세계 태권도마을이 조성된다. 특히 공원 안에는 태권도 아카데미를 개설해 태권도 관련 최고의 학부,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육성할계획이다.

4 애니메이션·게임 등 문화 콘텐츠 아이템 활용

'중국 소림사'는 중국 무술과 선종을 결합한 콘텐츠로 식음료에서 교육, 영화산업에 이르는 마케팅으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만화영화 '로봇 태권V', 퍼포먼스 '점프'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듯이 태권도도 좋은 문화 콘텐츠 소재가 될 수 있다.

국가브랜드위원회는 태권도의 정신, 유산, 생활양식 등 문화적 요소를 원천으로 한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만화 등 태권도 소재 문화 콘텐츠 아이템 개발 연구와 태권도 소재 킬러 콘텐츠 제작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태권도 공인 캐릭터'를 개발해 온라인 콘텐츠, 애니메이션, 각종 제품 생산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G

글·최호열 기자

태권도 세계화·명품화 방안

4대 과제	10개 추진사업
태권도 세계화	태권도 사범 파견, 태권도 시범단 파견 태권도 평화봉사단 파견, 글로벌 태권도 인턴 파견
태권도의 경쟁력 및 네트워크 강화	태권도 통합 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 글로벌 태권도 네트워크 구축(온라인 기반)
태권한류 관광 촉진	태권도 창작 공연물 제작 태권한류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세계적 태권도 행사 개최
태권도 활용 문화산업 활성화	태권도 소재 킬러 콘텐츠 제작

한국에 사는 외국인 이야기를 들어보니…

"살면 살수록 매력적인 한국 풍부한 전통문화 살려나가야"

체류 외국인 1백만명 시대를 맞은 한국에 바야흐로 글로벌시대가 피어나고 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때로 매력적이고, 때론 난감하다. 한국의 글로벌 선진화를 위한 이들의 애정 어린 지적을 들었다.

"2002 한일월드컵 때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한국은 그때와 지금 개방적인 모습이 또 다릅니다." 한일월드컵 당시 뜨거웠던 '붉은 열풍'에 매료돼 한국에서 살아온 닉 건트(30·국민대 영어강사) 씨는 영국 리즈가 고향이다. 영국에서 영문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한국 등 7개국에서 살아온 전형적인 '글로벌 노마드(Global Nomad)족'이다.

"한국은 살면 살수록 매력적인 나라"라고 전제한 그는 한국의 단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지적했다.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무신경하게 남과 부딪치며 타인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들도 남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아마 서울에서 오토바이들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듯 영국에서 그렇게 달린다면 당장 감옥에 갈걸요."

건트 씨는 또 "'글로벌화'란 한국적인 것을 버리고 서구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한국 사회가 글로벌화라는 이름 아래 고유의 전통을 빠른 속도로 잃어가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따끔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에 '무한애정'을 과시했다.

"자연·역사·문화자산 살려 '클린 컨트리' 알려야"

"항공대 영어강사인 아내가 새벽 2, 3시에 다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런던이나 파리 같은 세계적인 어느 도시도 서울만큼 안전한 곳이 없어요. 싱가포르도 안전한 도시이긴 하지만 '통제 도시'라는 점에서 자유로운 서울과 다르죠. 매력적인 한국영화, 먹을수록 좋아지는 음식, 놀라운 대중교통 시스템 등 한국의 장점은 무척 많아요. 그런데도 어쩌다 영국에 가보면 여전히 한국에 대해 '개고기와 김정일'을 떠올려 안타깝습니다."

건트 씨는 "많은 외국인 여행자들이 일본 도쿄에 온 다음 서울을 건너뛰고 곧바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한다. 이는 외국인의 눈에 한국이 덜 매력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한국의 절만 해도 도심의 절들은 전통적인 느

아기를 안은 이노우에 마오리, 닉 건트, 크리스티나 콘팔로니에리 씨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영철 기자

낌이 덜하고, 정작 전통성을 간직한 사찰들은 외국인들에게 홍보가 안 돼 있다"며 "세계적인 여행 안내서인 〈로운리 플래닛(Lonely Planet)〉을 봐도 일본 편은 두툼한 반면 한국 편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건트 씨는 "한국은 자연(Nature)과 역사(History), 문화(Culture)라는 소중한 자산을 갖고 있다"며 이를 중심으로 '클린 컨트리(Clean Country)'로서 한국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7년 1월 한국 남성과 결혼해 그간 한국에서 살아온 일본인 이노우에 마오리(34 · 피아니스트) 씨는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자리를 양보하며 붙임성이 좋다.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 일본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자체를 꺼려한다"고 한국인의 장점부터 말했다.

"진정한 글로벌사회 위해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해야"

이노우에 씨는 "한국인들은 일본인들보다 직접적이고 솔직한데 때로는 당혹스럽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만 많은 경우 한국인들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상점 종업원에게 마요네즈가 어디 있는지 물으면 '저기요' 하고 알려주지만 틀린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모든 것이 '갑자기'이고 즉흥적이다. 중요한 약속도 바로 전 날 하고, 오늘 결정된 것을 다음 날 바꾸기도 한다. 결정을 쉽게 바꾸는 것을 일본에서는 불명예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영철 기자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불리는 제프리 존스 이사장.

세계 어느 도시도 서울만큼 안전한 곳이 없어요. 싱가포르도 안전한 도시이긴 하지만 '통제 도시'라는 점에서 자유로운 서울과 다르죠. 매력적인 한국영화, 먹을수록 좋아지는 음식, 놀라운 대중교통 시스템 등 한국의 장점은 무척 많아요.

3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탈리아인 크리스티나 콘팔로니에리(28) 씨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빨리빨리' 문화에 놀랐다. 학교든 일터든 한국 사람들이 뭐든지 빨리 해야 한다고 해서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TV 연예오락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하면서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얼굴이 된 그는 2007년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에 살다 보니 '빨리빨리' 문화의 장점도 알게 됐고, 오히려 모국을 찾으면 답답할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부터 서울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장을 맡아온 콘팔로니에리 씨는 "한국은 전통문화가 살아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을 매료시킨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말을 모르면 한국생활이 힘들고, 서류 등을 떼기 어렵다는 점이 외국인들의 불편사항"이라고 전했다.

미국인인 제프리 존스(57) 재단법인 미래의 동반자 이사장은 한국인을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재미있다"고 운을 뗐다.

"대부분 친절하고 진심으로 외국인들을 반기며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가끔 외국인 처지에서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외국 사람이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려고 할 때 담당 직원이 도망가거나 다른 직원을 불러 외국 사람을 도와주도록 합니다. 이럴 때 그 외국인은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내기도 존스 이사장은 "그럴 때에는 도망가는 것보다 한국말이라도 하며 도와주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30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 수잔나 삼탁 오(51 · 대성그룹 고문) 씨는 "이젠 한국도 글로벌화된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글로벌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다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남매를 둔 그는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한국 유적지나 문화재 등을 구경시켜 주고 한복을 입어보는 피상적인 내용"이라며 "한국 사회 내부의 성숙한 글로벌화를 위해 내실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외국 언론에서 본 한국

빠른 경제회복 · 녹색성장 높이 평가

올 한 해 외신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회복된 한국경제를 주요 기사로 다뤘다. 또 녹색성장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경제 관련 보도는 2009년 3월 '한국 정부의 재정확대 조치가 경기부양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무디스의 평가가 나온 후 늘어나기 시작해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력, 국제기구의 한국 성장 전망 상향 조정 등의 보도가 잇따랐다.

올해 4월 25일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분기 한국경제가 5.1퍼센트 하락했던 지난해 4분기에 비해 0.1퍼센트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경제성장에 기대 이상의 효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블룸버그〉는 5월 4일 워런 버핏의 한국 관련 발언을 보도했다. 버핏은 "만약 투자를 시작한다면 저평가된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것"이라며 "한국은 굉장한 국가"라고 강조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8월 3일자 아시아판에서 "한국의 6월 산업생산이 뚜렷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7월 수출 하락폭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었으며,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한국의 회복세가 더 가속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9월 6일자 미국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은 "아시아 4번째 경제 대국인 한국의 경제위기가 1년도 되지 않아 종료되었으며 한국경제가 다시 활보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10월 27일 〈파이낸셜타임스〉는 "3분기 한국경제가 7년래 가장 빠르게 성장했으며 아시아가 글로벌 경제 및 무역 침체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언론이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전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도하고 한국의 기술력과 열정을 높이 평가했다.

일본의 〈닛케이〉는 올해 1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녹색성장 전략을 내세웠다. 일본 정부도 일본판 뉴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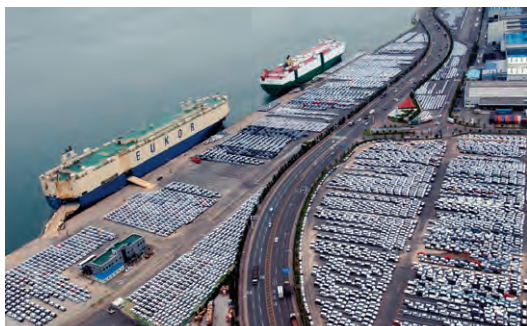
독일 〈프랑크푸르터룬트샤우〉는 3월 30일 영국 HSBC 연구결과를 인용해 "한국의 녹색뉴딜 정책 중 80퍼센트가 환경과 연관되어 있는 반면 독일 경기부양책은 13퍼센트만이 환경 관련 예산"이라며 한국의 친환경적인 경기부양책을 호평했다. 미국의 〈타임〉도 6월 25일 "경기부양 예산의 81퍼센트를 녹색프로젝트에 투입하고 있는 한국에 비해 미국의 예산 비중은 12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며 미국의 분발을 촉구했다.

닛케이 "경제위기 극복 '녹색성장' 카드 日도 배워야"

7월 5일자 스페인의 〈엘문도〉는 한국의 녹색 비전과 관련해서 "단순히 공해를 줄이기 위한 환경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뜻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인용하면서 "이미 한국은 서울의 청계천 복원사업과 각종 산림정책을 통해 녹색 도전의 능력과 신념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이 밖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한국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과 함께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높이 평가했으며, 신아시아 외교 구상에 대해서는 한국이 한·아세안 협력을 바탕으로 아세안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본, 중국과 경쟁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수출 호조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성장 전망 상향 조정 등 한국경제에 대한 외신 보도가 많았다. 사진은 현대 · 기아차 수출부두(왼쪽)와 LG전자 트롬세탁기(오른쪽).

‘한국’ 하면 ‘기술력’… 서비스는 아직…

외국인들은 한국 하면 기술력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음식, 드라마·영화 등도 한국 이미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또 올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하게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나라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연합

외국인들은 한국의 대표 이미지로 기술력을 꼽았다. 휴대전화는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사진은 삼성전자 휴대전화.

외국인들은 한국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릴까?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3개월간 전 세계 25개국 4천2백14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브랜드 맵’ 조사 결과 ‘기술력’으로 나타났다.

국가 브랜드 맵 조사는 국가브랜드위원회, 지식경제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산업정책연구원이 국가브랜드를 관리하고 수출증대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이다.

기술력은 2007년에 이어 2년 연속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꼽혔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기술강국으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류 관련 이미지도 강세를 보였다. 한국음식과 드라마가 2위와 3위를 차지했고, 영화와 연예인도 9위와 10위에 올랐다. 이 밖에 한국사람이 4위, 경제성장이 5위, 올림픽과 월드컵이 10위로 꼽혔다. 하지만 6·25전쟁과 북핵문제가 6위와 7위에 올라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가장 좋게 평가하는 나라는 러시아였고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브라질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을 가장 나쁘게 평가하는 나라는 대만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 제품에 대해 호의적인 국가는 러시아,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순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진종욱 디자인브랜드과장은 “국가 선호도는 제품 선호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고급 디자인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이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기술력’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은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고 대답했다.

산업별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국가에 대한 조사에서 한국은 영화·드라마가 2위, 가전·온라인게임·휴대전화가 3위로 나타났고 가공식품·화장품이 4위, 자동차가 5위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휴대전화 산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어서 가전, 영화·드라마, 가공식품, 의류 디자인, 자동차, 온라인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화장품 산업 순이었다.

한국의 휴대전화 산업에 대해서는 이탈리아가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뒤를 이어 러시아, 브라질, 미국, 베트남 순이었다. 한류 열풍이 부는 필리핀, 태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에서는 한국의 영화·드라마 산업을 가장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해외 소비자들은 아직도 한국 제품과 서비스의 질이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고 보고 있었다. 가격이 1백 달러인 한국 제품(서비스)이 있다고 할 때 다른 나라 제품(서비스)의 가격은 얼마나 될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독일 1백49.9달러, 미국 1백48.5달러, 일본 1백41.6달러라고 답했다. 반면 중국은 71.8달러였다.

진 과장은 “한국과 중국의 선진국 추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보다 더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분발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G

글·이혜련 기자

국가브랜드를 위한 전문가 제언

"살아 숨 쉬는 한국을 선물하세요"

우리나라가 국격을 높이고 글로벌 코리아로 거듭나려면 어떤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까. 광고·홍보, 마케팅, 경제, 브랜드, 디자인, 국제협력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문애란 웰콤 고문

"한국적 캐릭터, 글로벌 미디어에서 살려내야"

동아DB

미국이나 유럽 등지의 외국인들은 과거의 한국이 아닌 살아 있는 한국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한 예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유명 외국인이 며칠 동안 한국에서 본 것이 한정식과 한옥뿐인데 아무런 영감을 얻을 수 없었다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청담동, 홍익대 인근의 24시간 PC방, 창경궁 돌담길, 포장마차 등을 보여줬더니 영화 속에 담고 싶은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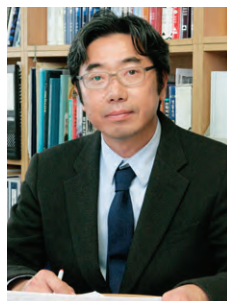
현재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젊은 한인 2세 인재들은 한국을 위해 자신의 재능과 커리어를 바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을 네트워크화하여 밖에서 한국의 글로벌화를 알리는 일을 하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국적인 캐릭터를 만화, 영화, 게임 등 글로벌한 모든 미디어 속에서 살려내야 합니다. 외국에서 한국을 소개한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주 오래 전의 콘텐츠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패션, 영화, 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고 쇼핑도 겸할 수 있는 업데이트된 사이트 개설도 절실합니다.

한상만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

"브랜드 정체성 명확히 세워 추진해야"

정경택 기자

코리아라는 국가브랜드를 마케팅하려면 우선 브랜드의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브랜드의 비전을 정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는 일, 브랜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가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러한 요소들을 상호 간에 시너지가 발생하도록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국가 위상 제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볼 때 코리아 브랜드의 가치는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코리아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려면 한국 상품이 세계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을 매력적인 방문 장소로 관광자원화해야 합니다. 한국을 세계경제의 중요한 투자처로 만들어서 다양한 투자 재원이 모이게 하고, 한국 인재들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국가 마케팅은 상품 마케팅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하지만 그 유사성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상품 마케팅에서처럼 다른 나라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소비자들이 코리아 브랜드에 구매욕을 느끼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마케팅 예산의 사용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국가 마케팅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명열 HS애드 상무

"하드·소프트웨어 균형 발전에 노력"

조영철 기자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브랜드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브랜드라는 열차를 이끄는 엔진이 경제 부문의 세계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독일, 일본 역시 경제력이 뒷받침됐기에 세계적인 브랜드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통해 세계 No.1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LCD, 반도체, 조선, 철강 분야는 물론 정보기술(IT)과 통신 분야도 세계 최강입니다. 바로 이 점이 글로벌 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엔진입니다.

그렇다고 경제성장만이 글로벌 코리아의 브랜드력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균형발전을 이

뤄야 합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더 많은 글로벌 No.1 브랜드가 나타나야 하며, 아울러 브랜드 연상을 강화하는 노력이 꾸준하고 활발하게 전개돼야 합니다.

명불허전(名不虛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은 결코 헛되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수반돼야 합니다. 우리의 IT 기반과 세계적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은 코리아의 소프트파워를 세계에 알리고 브랜드력을 키우는 약진의 발판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동시에 세계적인 트렌드와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김준교 중앙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국민 모두가 공공디자이너입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와 조선산업 등의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임을 인정받고 있지만 디자인 능력은 아직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디자인을 시행하며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한 것에서 정작 우리의 정체성은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편리한 디자인을 추구하기에 앞서 오래되고 불편해도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편향적인 사고와 업적 지향적 사고는 무분별한 공사와 많은 예산 낭비를 부추겨 국가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는 관(官)이 주도할 수만은 없습니다. 관은 대한민국의 큰 그림을 그려내고 국민은 그 속에서 멋지게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대한민국, 더 큰 대한민국이 완성됩니다. 국민의 의식 변화가 그래서 더욱 절실합니다. 국민 모두가 디자이너가 되어 긍정적 변화의 주체가 될 때 글로벌 코리아와 더불어 우리 후손에게도 행복한 삶의 환경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합리적인 규제 시스템 정립해야 할 시기"

정경택 기자

현재까지 한국이 이룩한 경제 부문의 성과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기적이라고 인식할 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다만 향후 한국경제의 목표는 이러한 경제적인 성과들을 지속해나감과 동시에 이른바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 : 대기업이나 부유층의 소비나 투자가 중소기업과 중산층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통해 사회 구성원 전체의 후생을 높이고 행복감을 제고하는 데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좋은 규제'를 확립하고 '좋지 않은 규제'는 철폐하는 합리적인 규제 시스템을 정립해 한국경제의 기초 체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효율적인 공공 부문 혁신을 위한 노력도 지속돼야 합니다.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야기되는 재정 팽창 억제는 물론 공공 부문의 인력, 조직, 기능의 구조조정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도 필요합니다.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기업인들은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에 더욱 힘쓰고 정책 수요자의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홍보에도 더욱 효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강주현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대표

"진정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이뤄야"

한영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영국인 상무관은 "한국은 여러 나라가 함께하는 공동 행동보다는 혼자 빛날 수 있는 단독 프로젝트만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또 한 수출 증대 행사에서는 한국 연사들의 발표 내용에 대한 영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참석한 외국 바이어가 나가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국제협력에서는 상대가 아무리 개발도상국이라도 서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제협력 행사는 외국인에게 주는 한국의 국격(國格) 이미지가 생명입니다. 우리는 국제협력 관계에서 너무 한국 입장만을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형식적 국제협력 행사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외국인이 귀국 후 하는 말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편협한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존중과 사대는 엄연히 다릅니다.

경제,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국내 자료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더 많이 영어로 번역돼 한국과 국제협력을 원하는 나라들에게 알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내용들은 번역을 넘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진정한 해외화가 돼야 합니다. 글로벌 코리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을 알고 싶어 하는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면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G

정리 · 김지영 기자

국가브랜드 컨설팅 전문가 사이먼 안홀트

"브랜드는 현실의 결과… '환경' 놓치지 말아야"

사이먼 안홀트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국가 및 기업브랜드 컨설팅'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서울을 찾은 그는 국가나 도시의 '브랜드 만들기'가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팅 전문가인 사이먼 안홀트는 한국에 대해 세계인과 공감대를 만들어 국가브랜드의 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이먼 안홀트(48 · 영국)가 만든 '안홀트-GMI'는 2005년부터 매년 국가브랜드지수(NBI)와 도시브랜드지수(CBI)를 발표하고 있다.

영국 공공외교위원회 국가브랜드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기도 한 안홀트는 지금까지 26개국 정부에 국가 브랜드와 관련된 자문을 했으며 2007년 한국 관광브랜드인 '코리아 스파클링(Korea Sparkling)'을 만들기도 했다.

안홀트는 지난 10월 29일 서울에서 열린 2009 서울국제경제자문단총회(SIBAC)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도시나 국가의 명성은 고정자산과 비슷해서 한번 인식된 이미지는 잘 바뀌지 않는다"면서 명성이 없는 퍼밋 항공사와 높은 명성을 가진 애틀랜틱 항공사의 예를 들었다.

그는 두 항공사가 똑같이 비즈니스 클래스에 더블베드를 도입한 것에 대해 언론이 퍼밋 항공사에 대해서는 "경악스럽다"고 반응한 반면 애틀랜틱 항공사에 대해서는 극찬을 한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예를 소개하면서 "똑같은 내용이라도 명성의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며 다음과 같이 한국인들에게 조언했다.

세계가 무한 경쟁시대로 변모하면서 국가와 도시를 대표하는 명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관광객, 비즈니스 방문객, 투자 자본, 국제 언론의 관심, 국가·도시·정부의 관심, 문화 교류, 인적 자본 등의 확보에 있어 명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방문객은 1백99개의 경쟁국, 1천 개의 경쟁도시에 관한 정보 수집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성에 의존해 방문 장소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명성을 얻게 되는 브랜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 사람들은 이를 잘 바꾸려 하지 않으며, 개인에 따라 인식이 다르다.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가나 도시의 명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 정부는 좋은 명성을 잘 관리하고 차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넬슨 만델라는 인종차별주의로 유명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다음 대통령에게 '무지개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넘겨주었다. 반면 조지 부시 대통령은 과거 3백60년에 걸쳐 강력한 국가로 발전한 미국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형편없는 상태로 물려주었다.

브랜드란 풍요롭고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수백 년의 역사와 수백만의 인구를 하나의 이미지로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한 번 방문한 나라를 재방문하고, 그 나라 사람을 채용해 문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은 가능하다.

"정부는 좋은 명성 잘 관리하고 차세대에 넘겨주어야"

한국인들이 국가브랜드지수에서 올해 31위에 그친 것에 대해 속상해하지만, 성공한다고 자동으로 명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경제 발전, 사회 안정, 교육 분야의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한국인들뿐이며, 캐나다 사람은 자신의 일상과 관계없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일상생활과 관계될 수 있는 부문을 발견해 커넥션을 형성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유익할 수 있는 부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환경 분야는 많은 관심 대상이므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브랜드의 명성은 현실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현실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과 인식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이것은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것이며, 여러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G

글 · 박경아 기자

'선진 일류국가 가기 위해…' 정책집 낸 안경률 의원

"경범죄 日의 44배… 질서 캠페인 시급"

국격(國格)은 곧 국력이고 국가경쟁력이다. 국격은 군사력과 경제력뿐만이 아닌 좋은 문화에서도 나온다. 최근 '성숙한 사회,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 버려야 할 WORST 12'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시민의식에 경각심을 일깨운 안경률 의원을 만났다.

안경률 의원은 "국격 높이기 범국민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최근 '성숙한 사회,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 버려야 할 WORST 12'라는 정책자료집을 펴낸 안경률(61) 한나라당 의원은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 기초 질서를 지키고 법을 존중하는 것, 각 분야에서 폭력을 추방하는 것이 좋은 문화를 만들고 국격을 높이는 근간이 된다"고 강조했다.

의원께서 느끼시는 우리나라 '국격'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음주 소란, 오물 투기, 금연장소 흡연, 노상 방뇨 등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 건수만 봐도 우리의 국격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범죄 위반 행위는 10만명당 6백22건으로 일본(14건)의 44.4배에 이릅니다. 프랑스의 석학 기 소르망 박사가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10위인 데 반해 국가브랜드는 50위권이라고 지적한 것을 국격과 연관 지어 겸허하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정책자료집 '성숙한 사회, 선진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 버려야 할 WORST 12'를 내셨더군요.

세계가 대한민국을 모범국가로 보고 선진국으로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돌아보면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못지않게 사회 기본질서 또는 생활문화를 선진화하여 국격을 높이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 중에 중앙부처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간부 등과 토론하면서 자료집을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토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자료집 제작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지난 6월부터 6개월 동안 보좌진을 4개 팀으로 나눠 전국을 돌며 기초질서 위반, 폭력시위, 공무집행 방해, 쓰레기 무단투기 등 워스트(WORST) 현장을 취재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을 비교하기 위해 그 나라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고, 관계부처와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해야 하는데 주어진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뜻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지적하신 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정부와 지자체가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적, 예산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국격 높이기 국민운동을 벌이기 바랍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이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국격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미처 정리하지 못한 또 다른 워스트 자료를 찾아내려 합니다. 유류비, 휴대전화 요금, 의복비 등에 쌓인 거품 문제, 지나친 명품 선호, 무분별한 성형 유행, 허례허식, 과다한 사교육비, 불법복제 등 우리 사회에는 버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사회 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와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함께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G

글 · 최호열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법무부 홍보대사 영화배우 윤계상

"당신의 따뜻한 미소가 범죄 악순환을 끊어요"

법무부는 수형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정·교화정책으로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수형자의 재범(再犯) 가능성을 줄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돕고 있는 법무부의 다양한 활동을 알아봤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윤계상입니다. 저는 얼마 전 영화 <집행자>에서 신입 교도관 역을 연기했는데요, 그 덕분에 지난 10월 28일 '제64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법무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알리는 일을 맡았다고 생각하니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실 <집행자>를 촬영하기 전까지만 해도 교정행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찍으며 교정 공무원들의 애환과 일상을 많은 부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교정에 애착을 가지고 홍보대사로서 법무부와 교정본부가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교정·교화정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 죄의 대가를 치렀음에도 수형생활을 마치고 나서 사회에 복귀했을 때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 차가운 시선들로 말미암아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정·교화를 통해 범죄에서 완전히 손을 씻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듯 법무부는 범죄와 처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안양교도소에 국내 최초로 교정시설과 사회를 연결하는 완충기능을 하는 중간 처우의 집인 '소망의 집'을 개관했습니다. 이곳은 6개월 이내 가석방이 가능한 중·장기 수형자 1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제공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정·교화를 통해 범죄에서 완전히 손을 씻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렇듯 법무부는 범죄와 처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윤계상은 "영화 속에서 맡은 교도관 역할을 통해 교정행정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다"고 말했다.

6개월 동안 구외공장 출퇴근 등 사회적응 능력 배양

이들은 주간에는 구외공장(교도소 외곽 건물에 입주한 기업)에 출퇴근하고, 공휴일에는 휴가 및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직, 가족관계 회복 등 맞춤형 처우를 제공해 해당 수용자가 출소와 동시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중·장기 수형자의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사회적응훈련원'을 개원하기도 했습니다. 천안개방교도소는 그동안 과실범의 개방처우(Open Institutions)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사회적응훈련원으로 특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수별 약 30명, 총 1백80명 정도의 인원이 편성돼 6개월간 3단계에 걸친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별 문제요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취업 및 창업지원 교육도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향후 중·장기 수형자들의 성공적 사회 정착 및 재범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형자들의 안정된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취업 및 창업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 7월부터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법무부 제공

배우 윤계상은 지난 10월 28일 '제64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출소자를 취업 강사로 활용하는 '수형자 사회복귀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는 외부 전문 강사나 교정 공무원들의 몫으로만 인식됐습니다. 그러나 사회복귀 과정에서 겪는 수형자의 애로와 심정을 잘 아는 출소자가 강사로 참여하면 수형자의 사회복귀 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더군요.

출소자 취업박람회 등 취 · 창업 지원도 활발

취업 및 창업 교육만이 아니라 실제로 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박람회'도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천안개방교도소 사회적응훈련원에서 전국 교정시설 가석방 대상자 등 출소 예정자 5백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제1회 출소 예정자 취업박람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출소 예정자를 비롯해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박람회는 국내 최초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군요. 교도소 내 잔디밭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1사(社)1우(友)운동(한 기업당 한 명의 수형자 채용하기)'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 60여 개 중소기업체가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 예정자들에 대해 현장 채용 면접을 실시한 결과 1백20여 명을 채용하는 등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3월부터 수용자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의 디딤돌이라 할 수 있는 가족과의 단절 예방에 크게 기여하는 교도소 영상편지 '가족의 소리'를 제작하는 한편, 7월에는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와 함께 수형자 자녀 중 소년 소녀가장으로 있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형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수형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앞으로 매년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를 일구는 밑거름이 되리라 봅니다.

수형자 사회복귀 도우미 제도, 취업 박람회, 수형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등 법무부의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많은 수형자들로 하여금 범죄의 악순환을 걷어내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저 윤계상도 법무부 홍보대사로서 또 영화배우로서 국민 여러분께 행복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

정리 · 김성주 객원기자

대통령 특사로 노르웨이 다녀온 강승규입니다

"환경 투자가 미래 위한 코드"

깨끗한 자연환경과 높은 선진의식으로 유명한 노르웨이는 우리나라에서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먼 나라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서가는 선진국인 노르웨이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다녀왔다.

강승규 의원(사진 오른쪽)과 장윤석 의원(사진 가운데)은 지난 11월 18일 대통령 특사로 노르웨이를 방문해 스퇴레 외교장관을 면담했다.

'바이킹의 나라' 노르웨이에는 먼 이국땅인 한국의 과거를 체감할 수 있는 자취가 있다. 6·25전쟁으로 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노르웨이로 입양된 한인 8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18일 한·노르웨이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파견된 대통령 특사단 일행은 최병구 주(駐) 노르웨이 대사의 주선으로 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실 어떤 표정으로, 어떤 표현으로 이들을 만나야 할지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을 만나는 순간 이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위로해 주고 싶었던 어두운 과거를 화두로 삼기에는 이들의 표정은 밝았고 오히려 힘찬 미래로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크비바르그, 이민국 공무원 소일리, 피부과 의사 란드로, 입양기관 근무자 룬드, 국립교향악단 바이올리니스트 툼틀, 배우 그란나, 포르투갈 항공사 직원 욘. 당당한 전문가로 자란 한인 입양아들은 최병구 주노르웨이 대사가 대통령 특사 일행을 맞아 주최한 2시간 동안의 만찬에서 누구 하나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한국인들이 누군가 처음 만날 때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고향을 묻고, 학교 동창 관계를 묻는 것처럼 입양아든 특사 일행이든 누군가 한 번쯤은 물어봄직도 한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지금 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노르웨이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장한 뒤 만난 한국에 대한 인상은 어떤지, 매운 한국음식을 잘 먹는지 등이 주요 화제였다.

만찬 후 최병구 대사에게서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은 생모를 찾기 위해 한국을 열한 번이나 방문했다"는 후일담을 듣고 나니 만찬 때의 분위기가 더욱 새삼스러워졌다. 결국 만찬 말미에 마신 '소주 폭탄주' 한 잔이 양국 간 우호관계 속에 묻혀 있는 우리의 슬픈 과거를 말없이 삼키는 듯했다.

노르웨이는 6·25전쟁 때 의무단을 파견하고 대한민국 국립의료원의 전신인 메디컬센터를 지원 운영해준 우리 혈맹국이다. 지금도 국민총소득(GNI)의 1퍼센트 이상을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유엔의 평화유지군(PKO)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원조 선진국이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선진국으로서 세계 3대 원유 수출국임에도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환경 선진국이다. 이런 노르웨이에서 이번 특사단 일행은 한·노르웨이 관계의 미래를 느낄 수 있었다.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적극 검토하겠다"

총리를 대신해 대통령 친서를 접수한 스퇴레 외교장관은 "한국은 노르웨이에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나라이며 유럽과 아시아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내년쯤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 선진국인 노르웨이의 여수세계박람회 참가를 조기 결정해달라는 특사단 일행의 요청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한국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4퍼센트 감축한다는 획기적인 계획을 확정했다는 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그동안 양국의 선박 분야 교류를 뛰어넘어 재생에너지 및 정보기술(IT), 생명과학기술(BT)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그동안 한·노르웨이 교류는 한국의 짝사랑에 그친 면이 없지 않았다. 정치인과 경제인들의 교류도 한국 측의 노르웨이 방

경제,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우리나라와도 활발한 교류가 기대되고 있다. 노르웨이 서북부 항구도시 올레순.

문에 비해 노르웨이 인사의 한국 방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노르웨이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덜했던 것이다.

"녹색성장 모델은 양국 협력에 큰 도움 된다"

그러나 이런 태도에도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최병구 대사도 귀를 의심했듯이 차기 총리로 촉망받는 스퇴레 외교장관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표현했고, 페르 크리스티안 포스 국회 부의장도 한국 방문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발언들은 의례적인 외교적 발언을 넘는 미래에 대한 성찰로 들렸다.

반세기 만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내 세계적인 개발 모델을 제시한 대한민국이 이제 '환경을 전제로 한 개발, 환경과 동반하는 성장'인 녹색성장을 새로운 전략으로 채택했다는 설명에도 양국 간 실질적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성장 지상주의를 통해 빠르게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수 있었다. 또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환경 변화 등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맞춰 녹색성장을 통한 제2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세계 3대 원유 수출국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9만 달러에 가까운 노르웨이는 세계 최고 부자나라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적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다. ODA 원조 및 PKO 활동 지원, CCS 등 환경 투자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과 노르웨이가 만날 수 있는 미래 코드가 여기에 있다.

미래 글로벌 사회에서는 환경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듯이 우리들의 형제자매인 노르웨이 입양아들이 한국과 노르웨이의 미래를 연결하는 가교가 돼줄 것을 기대하며 적극적인 양국 교류를 기대해본다. G

글 · 강승규(국회의원)

알립니다 다음 호(41호)에는 대통령 특사로 폴란드를 다녀온 장윤석 의원의 방문기가 실릴 예정입니다.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2012 여수세계박람회

해양 강국의 꿈, 닻이 올랐다

해양 녹색경제로 이뤄질 미래 세상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닻을 올렸다.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현명한 해양의 이용, 바다와 인간의 창조적인 만남을 제시할 여수세계박람회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녹색성장국가,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공식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박준영 전남지사, 강동석 조직위원장 등이 공사 시작을 알리는 터치버튼을 누르고 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닻을 올렸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1월 30일 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여수 신항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박준영 전남지사, 오현섭 여수시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공식을 가졌다.

기공식은 박람회의 친환경 성격에 맞춰 폭약을 사용한 발파 행사를 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물 분수를 쏟아낸 뒤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대형 풍선을 띄워 축하했다.

정 총리는 기공식 기념사에서 여수세계박람회를 "자원의 보고인 바다와 연안에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제시하는 자리, 우리의 해양과학과 해양산업의 발전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과 성과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가 여수세계박람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계 속에 우리나라의 품격이 높아지고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석 조직위원장도 기공식사를 통해 "세계박람회 유치가 확정된 지 2년 만에 역사적인 첫 삽을 뜨게 됐다"며 "박람회 성공 개최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해양도시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권은 국제적인 해양관광의 메카로 크게 도약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기공식을 계기로 여수세계박람회 준비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여수세계박람회는 2007년 11월 27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유치가 확정된 후 조직위를 중심으로 기본계획 수립, 국제관 및 주제관 국제 설계공모 등을 추진해왔다.

박람회 관련 시설은 여수 신항 일대 총 1백74만 제곱미터에 국제관, 주제관, 기업관 등 총 13개의 전시관과 2천10가구 규모의 엑스포 타운 등 다양한 행사시설이 들어선다.

13개 전시관 · 2010가구 엑스포 타운 등 행사시설 완비

조직위는 전시관 건립을 위해 올해 4월부터 현상공모를 거쳐 국제관, 주제관 등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한국관은 '탄소배출 제로 시범건물'로 이달 말 발주할 예정이다. 엑스포 타운은 현재 70퍼센트의 협의보상을 완료했으며, 6천30톤의 수조를 갖추고 국내 최대 규모로 건립되는 아쿠아리움은 세계적 희귀생물인 흰고래를 들여오는 등 연구·교육 중심형으로 조성된다.

또한 수도권을 비롯해 각 지역에서 박람회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9조5천억원을 투입해 사회간접자본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익산~여수 전라선 복선 전철화, 전주~광양 및 광양~목포 고속도로 등으로 수도권에서 3시간대, 부산에서 2시간대, 목포에서 1시간30분대면 박람회장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0년 예산안에 전주~광양 고속도로, 전라선 복선 전철화 등 13개 사업에 1조5천6백86억원을 반영했다.

조직위는 참가국 유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 11월 30일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중국, 독일, 터키, 스페인, 태국 등 30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동아시아해양관리협력기구(PEMSEA) 등 3개 국제기구가 공식 참가를 통보해왔다. 조직위는 여수세계박람회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세계적 관심사이자 국정 기조인 '녹색성장'과 여수세계박람회 주제인 '해양환경' 그리고 여수의 비전인 '남해안 중심도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 조감도.

1백여 국가에서 외국인 55만명을 포함해 8백만 관람객이 참가하는 전 지구적 축제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홍보와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여 올해 말까지 50개국을 유치할 계획이다.

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간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기후환경, 해양생물), 현명한 해양의 이용(해양산업기술, 도시), 바다와 인간의 창조적인 만남(예술, 문명)을 제시한다.

박람회장은 해양 녹색경제로 이뤄질 2050년 미래 세상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각 전시관마다 자원, 기술, 건축, 설계, 식품 등 분야별로 연출되며, 웹 3.0으로 실현될 미래의 유비쿼터스 세상을 연출한다. 또한 공간, 건축 디자인에서 자재, 에너지 공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설이 녹색성장의 미래 견본시로 조성된다. 탄소중립형 단지 조성으로 미래 저탄소 녹색건축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린 정보기술(IT) 등 정부의 녹색성장 신사업의 실험장으로 활용된다.

행사 이후는 남해안 신성장동력 전진기지로 활용

박람회는 행사 이후 남해안 지역의 신성장동력 전진기지로 활용된다. 조직위는 세계적 관심사이자 국정 기조인 '녹색성장'과 여수세계박람회 주제인 '해양환경' 그리고 여수의 미래 비전인 '남해안 중심도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다의 녹색경제연구기술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박람회장 건설 계획과 동시에 사후 활용 계획, 추가 개발 계획,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88 서울올림픽, 1993 대전박람회, 2002 한일월드컵에 이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다. 조직위는 박람회를 통해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면에서 국가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해양강국으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2016년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수세계박람회는 남해안 선벨트 중 남중권의 핵심사업으로서 남해안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토성장의 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권역의 경제효과만 보더라도 5조2천억원의 생산유발과 2조4천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및 3만4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12조 2천억원의 생산 유발과 5조7천억원의 부가가치 및 7만9천명의 고용창출 효과로 우리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화보집에는 남해안의 아름다움을 담았다.

한편 조직위는 12월 2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남해안권 화보집'을 발간했다. 여타 세계박람회의 화보집이 박람회 개최 이후의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사후 기록용으로 발간돼 왔으나 이번 화보집은 박람회 4년 전부터 기획됐다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 조직위는 향후 박람회가 개최되는 2012년까지 매년 참여 범위를 넓혀가며 다른 주제로 화보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6개 국어로 1만5천 부가 발행된 화보집 중 6천 부는 전 세계 50여 개국의 주요 국가기관 및 국제기구, 환경단체, 정·재계 주요 인사 등에게 발송되어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대한민국 여수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보집에 실린 작품은 12월 7일 전남도청 청사 로비(12월 7~9일)를 시작으로 경남 창원 컨벤션 센터(12월 10~12일), 여수시청 청사 로비(12월 14~16일), 여수공항 대합실(12월 17~18일) 등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G

글 · 이혜련 기자

'녹색 건설' 선두 주자 대림산업을 가다

"그린이란 말이 없어질 때까지 '환경'을 생각합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 'e편한 세상' 공사 현장 3번 입구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했다. 이렇게 모아진 태양에너지는 전기에너지로 전환돼 온수를 공급한다.

서울의 명소로 대표되는 곳들에서 땀 흘리며 현장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일궈내는 산업 역군이 있다. 녹색경영 비전을 선포한 '대림산업'이다.

건설공사 현장이라고 하면 대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굴삭기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커다란 흙덩이를 파내고 뿌연 흙먼지가 이리저리 흩어지는 광경이다. '쾅' 하는 굉음이 들리면 위협감마저 느낀다. 이곳에서는 '녹색'이나 '친환경' 같은 단어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180도 뒤집는 공사 현장이 있다.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대림산업의 'e편한 세상' 현장이다. 지난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1년 12월 완공되는 이곳은 8백95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다.

이곳에서 맨 처음 눈에 띄는 것은 공사 현장 입구에 있는 태양광 발전 설비다. 공사장 가설 펜스에 붙어 있는 태양전지는 마치 여러 조각의 거울처럼 붙어 있는데 45도로 경사져 있어 오후 내내 따사로운 햇빛을 바로 받는다. 이렇게 모은 태양광은 태양열 급탕 시스템을 통해 전기에너지로 이용돼 1년 내내 사무실, 직원식당, 화장실 등에 온수를 공급한다.

이처럼 대림산업은 '그린 컨스트럭션(Green Construction)'을 모토로 신당동 아파트 건설 공사를 하고 있다. 그린 컨스트럭션은 친환경, 저에너지 설비를 적용한 친환경 건축 현장 관리 시스템으로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지 않는 친환경 공사 현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크게 에너지 저감, 자원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녹색 공사 현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국내 건설업계 공사 현장에서 처음 시도되는 일들이다.

'그린 컨스트럭션' 모토 친환경 공사 현장 만들기 박차

현장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 주변을 둘러보니 눈에 띄는 것들이 더 있다. 먼저 가로등처럼 생긴 풍력발전기였다. 바람이 잘 부는 높은 지대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하루 총 16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해 현장 사무실 조명의 불을 밝힌다.

현장 사무실 뒤편에는 10톤 크기의 빗물 저장탱크를 두어 사무실 지붕의 빗물을 저장한 뒤 화장실 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옥상 지붕에는 화단을 조성해 겨울에는 찬 바람을 막고 여름에는 뜨거운 열을 막으면서 멀리서 보기에도 좋은 역

서울 중구 신당동 'e편한 세상' 공사 현장에 풍력발전소, 태양전지, 빗물 저장탱크(왼쪽부터) 등을 설치해 친환경, 저에너지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있다.

할을 하고 있다.

사무실로 들어서자 초겨울의 쌀쌀한 바람보다는 따스한 온기가 밀려들어왔다. 하현호 대림산업 공무팀장은 "난방 시스템을 전혀 틀지 않았는데도 따뜻하게 느끼는 것은 고성능 단열재, 일사 차단 도료를 사용해 건물을 짓고 지열을 이용한 환기 시스템을 갖춘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런 설비들을 토대로 공사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있으며, 매달 초 직원들을 대상으로 녹색생활 평가를 실시해 친환경 오피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 팀장은 "현장 사무실과 현장 주변에 친환경, 저에너지 설비를 적용해 일을 하다 보니 직원들 모두 환경을 지키는 녹색습관을 저절로 익히게 됐다. 더욱 현장에서 '그린(Green)'을 생활화해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수강 대림산업 건축사업본부 본부장은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이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공사 중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소음, 분진, 건설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창립 70주년을 맞은 대림산업은 경인 · 경부 · 호남고속도로에서부터 세종문화회관, 청계천, 광화문 광장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물을 만들어왔다. 올해 대림산업은 미래 주거 환경과 자연 환경을 위해 '친환경 저에너지'를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잡고 '저탄소 그린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이란 비전을 발표했다.

이에 녹색경영 비전을 달성하는 방안의 하나로 업무 과정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그린 해빗(Green Habit) 캠페인을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한 가상 사무 시스템 도입 및 정보기술(IT)을 통한 업무 방식의 그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대림산업 김종인 사장

"저탄소 녹색성장은 선택 아니라 필수"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대림산업이 녹색성장을 비전으로 선포했다. 녹색경영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림산업 김종인 사장을 만났다.

'녹색경영'의 기업 비전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구온난화로 대표되는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환경 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녹색성장이라는 패러다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녹색비전과 관련해 일궈낸 성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2003년 국내 최초로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수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저에너지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관련 기술을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녹색건축 세미나, 그린홈 컨설팅과 같은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 해빗(Green Habit)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임직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올 초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그린 해빗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사와 현장,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적정 실내 온도 유지, 재활용, 분리수거, 화상회의,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등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여 대림산업 임직원들이 저탄소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녹색활동을 수기 형태로 작성하여 매일 아침 사내 방송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림산업이 중점 추진할 녹색경영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우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변화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이자 또 다른 기회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녹색경영을 바탕으로 대림산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저탄소 녹색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속 터지는 ARS 확 바꾼다

방통위, 자동응답시스템 불만사항 분석 가이드라인 마련

불편한 ARS가 달라진다. 최대 5단계로 간소화되고 메뉴도 표준화된다. 또 각 단계마다 상담원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담원 연결메뉴가 생기고, 연결 대기시간이 30초를 넘으면 상담원이 전화를 거는 콜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러스트 · 이승헌

"지금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이오니,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키는 대로 주민등록번호까지 입력하고 불필요한 광고를 다 들어가며 기다렸건만 '통화 중이니 다시 걸라'는 안내 말이 흘러나오자 이미경(41) 씨는 짜증이 치밀었다. 벌써 세 번째였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이 씨만은 아닐 것이다. 요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자동응답시스템(ARS · Auto-matic Response Service)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담원과 직접 통화하기는 쉽지 않다. ARS 메뉴가 복잡하고 상담원 연결까지 대기시간이 긴 데다 이 씨의 경우처럼 상담원 연결이 되지 않아도 대기시간 요금을 이용자가 내야 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생활공감 정책' 일환 ARS 운영 개선 권고안 마련

하지만 앞으로는 상담원 연결이 원활해지고 광고성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등 ARS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ARS 이용과 관련해 제기된 불만사항들을 분석해 이용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ARS 운영 개선 관련 17개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정부가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발굴해 개선하는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이다.

우선 상담원 연결기능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여러 단계의 안내 말을 다 듣고 나서야 상담원과 연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ARS 초기단계를 포함한 각 단계마다 상담원과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상담원 연결메뉴를 두도록 했다. 또 원활한 연결을 위해 적정 규모의 상담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복잡한 구성단계가 간소화되고 메뉴도 표준화된다. 이용단계 수를 가급적 3단계 이내로 구성하되, 5단계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상담원 연결은 '0번', '이전단계로 되돌아가기'는 '#번', '다시 듣기'는 '*번'으로 표준화했다. 상담원 연결이 몇 번인지 알기 위해 여러 단계의 안내 말을 다 들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또 이용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활용 빈도가 높은 정보를 초기단계에 배치하고 대기시간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고성 정보 제공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만약 상담원 연결을 위한 대기시간이 30초를 넘으면 상담원이 이용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콜백(Call Back)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알 수 있도록 ARS 서비스 시작 안내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수신자 부담(080) 방식을 활용하거나, 전국 대표번호(15** 등)를 이용하는 경우 요금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명희 이용자보호과장은 "ARS가 전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공기관에 시행 공문을 보내고 민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라며 "개선 실적을 점검해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표하는 ARS 평가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G

글 · 이혜련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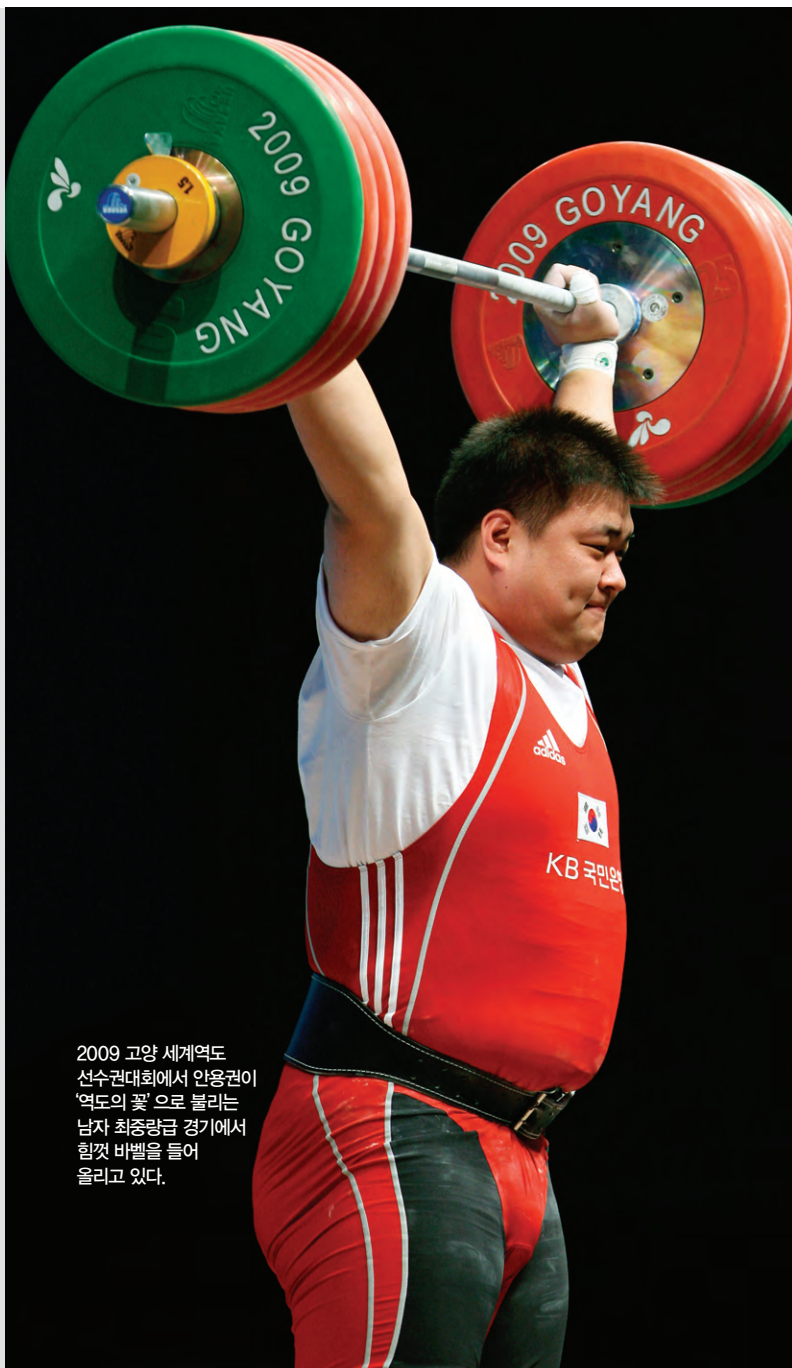
신종 플루로 헌혈자가 감소하여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병원에서는 1분에 8개, 1시간에 469개, 하루 11,267개의
혈액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적십자사

헤라클레스 남매, 세계를 들다

장미란 세계신기록 달성…
안용권은 男 최중량급 첫 금메달

지난해 베이징올림픽 당시 가장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운동선수로 꼽힌 장미란이 여자역도 최중량급에서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최중량급에서는 안용권이 금을 번쩍 들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헤라클레스 남매의 탄생이다.

동아DB

2009 고양 세계역도 선수권대회에서 안용권이 '역도의 꽃'으로 불리는 남자 최중량급 경기에서 힘껏 바벨을 들어 올리고 있다.

한국역도가 세계역도의 중심으로 우뚝 섰다. 장미란(26·고양시청)이 11월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막을 내린 2009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여자 최중량급(75킬로그램 이상급)을 제패한 뒤, 29일에는 안용권(27·국군체육부대)이 남자 최중량급(1백5킬로그램 이상급) 정상에 올랐다.

'역도의 꽃'으로 불리는 최중량급은 육상 1백 미터와 비견된다. 지구상에서 가장 힘센 인간이 탄생하는 체급이기 때문. 세계선수권대회 사상 한 국가가 남녀 최중량급을 모두 휩쓴 것은 처음이다. 한편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재혁(24·강원도청)은 남자 77킬로그램급 용상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한국은 결국 2009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최고 성적(금 6개, 은 3개, 동 5개)을 거뒀다. 메달 수에서 중국은 금 18, 은 11, 동 10, 카자흐스탄은 금 9, 은 1, 동 2로 1, 2위였다.

한국은 메달 수에서는 카자흐스탄에 밀렸지만 각 체급의 1등부터 25등까지 포인트를 부여하는 대회 규정에 따라 남녀부에서 각각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장미란, 부담감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장미란은 여자 최중량급 용상(1백87킬로그램), 합계(3백23킬로그램)에서 2관왕에 오르며 세계선수권대회 4연패(2005, 2006, 2007, 2009)의 위업을 세웠다. 1987년부터 시작한 세계선수권대회 여자부에서 4연패를 이룬 선수는 중국의 리야쥐안(1990~1993년)과 탕웨이팡(1995~1998년)뿐이다.

국제역도연맹(IWF) 기자단은 2009 세계선수권대회 여자부문 '베스트 리프터(Best Lifter)'로 장미란을 선정했다. 베스트 리프터는 세계 역도선수의 최우수 선수(MVP) 격이다.

"다시는 한국에서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이번 대회를 앞두고 장미란의 부담감은 컸다. 기록 경신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더구나 자신이 소속된 고양시에서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렸다. 고양시는 8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미란체육관'까지 만들 정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장미란은 고양시에서 열린 2009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인상과 용상 1차 시기를 모두 실패했다. 10년간의 선수 생활 중 처음 겪는 일이다. 하지만 그녀는 무서운 집중력으로 용상 3차 시기에서 베이징올림픽에서 자신이 세운 세계기록을 넘어섰다. 경기장을 찾은 아버지 장호철(55) 씨는 "정말 극적인 경기였다"면서 "딸의 경기를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은 2006 도하아시안게임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박태환 – 장미란, '국민오누이'의 우정

장미란은 이번 세계선수권대회 직전, 운동과 관련된 꿈을 자주 꿀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다. 컨디션도 많이 나빠진 상황이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장미란은 성경책이나 기독서적을 보

면서 마음을 다스렸다. 장미란은 "잘 안 될 때는 최대한 심플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장미란은 어느덧 고참 선수다. 그는 자신의 슬럼프 극복에 신경을 쓸 뿐만 아니라 후배들의 상심한 마음까지도 다독여주는 선배다. 지난 8월 로마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직후 장미란은 태릉선수촌으로 돌아온 박태환(20·단국대)에게 산책을 청했다. 박태환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의 부진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다.

장미란은 "운동에 대한 얘기는 일부러 안 했다"고 했다. 박태환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헤아렸기 때문이다. 함께 걷는 길이 길어질수록 '국민오누이'의 따뜻한 정은 쌓여갔다.

2008 베이징올림픽 이후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태릉선수촌에서 보낸 장미란은 2010년 1월 9일까지 약 한 달간의 '꿀맛' 휴가를 받았다. 그간은 "가장 큰 유흥이 강남역 근처에서 밥 먹고 차 마시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꽉 짜인 생활이었다. "일주일 정도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고 싶다"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장미란에게는 이번에도 이룰 수 없는 '숨겨둔' 꿈이 있다. 나이 서른이 되는 해 단짝 친구 2명과 함께 하기로 한 세계 일주 약속이다. 공교롭게도 런던올림픽이 열리는 2012년은 장미란이 우리 나이로 서른이 되는 해다. 장미란은 "친구들은 미리 세계 일주를 시작하고, 영국을 돌 때쯤 나보고 합류하라는데, 지켜질지는 모르겠다"며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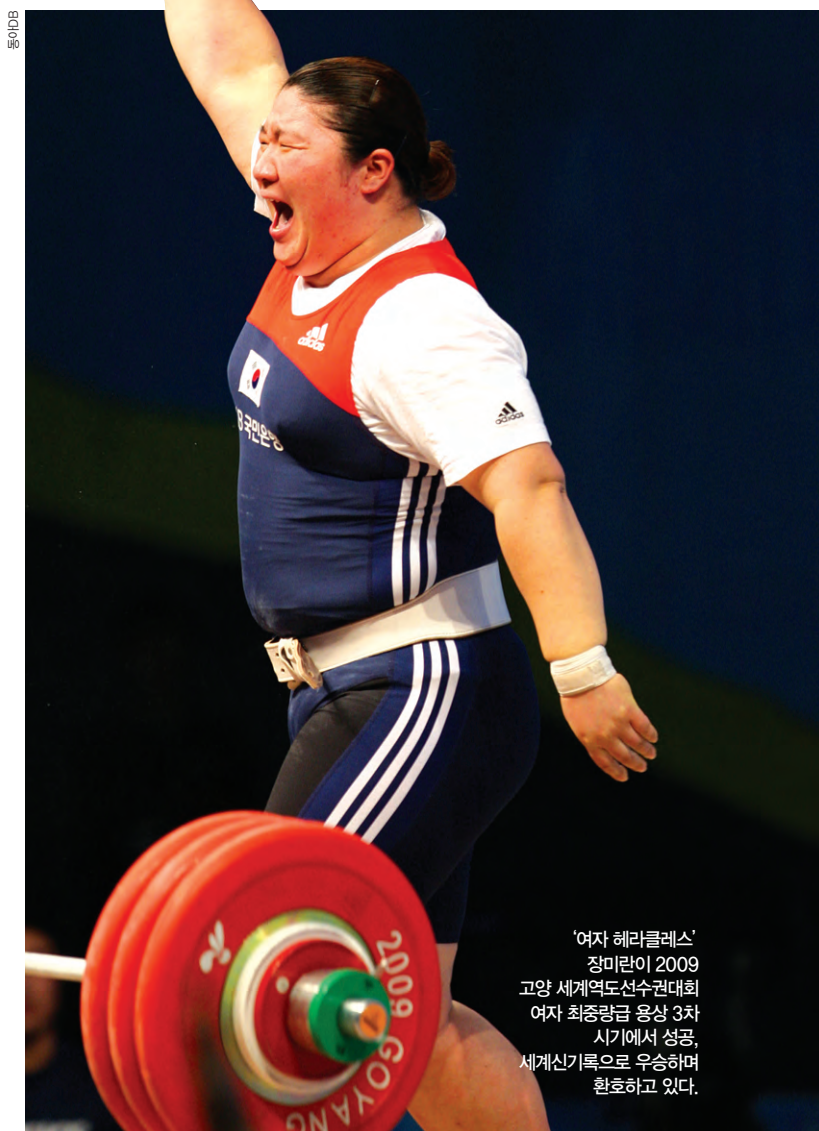
비밀병기 안용권,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남자로 등극

안용권은 지난 6월 2009 한중일대회에서 인상 2백6킬로그램을 기록해 2002년 '아시아의 역사' 김태현(40·고양시역도연맹회장)이 세운 한국기록(2백5킬로그램)을 갈아치웠다. 마침내 '다크호스'는 대형 사고를 쳤다. 2009 세계선수권 용상(2백47킬로그램), 합계(4백45킬로그램) 금메달이다.

한국이 세계역도선수권 남자 최중량급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사상 최초다. 이전 최고 성적은 1999년 아테네 대회에서 김태현이 획득한 용상 은메달이다.

안용권에게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던 사에이드 알리 호세이니(21·이란)가 대회 도중 훈련하다 팔꿈치를 다쳐 출전을 포기하면서부터 서광이 비쳤다. 안용권은 용상 3차 시기에서 2백47킬로그램을 뽑아들며 아르템 우다친(29·우크라이나)과 합계에서 동률을 이뤘다. 그러나 몸무게가 덜 나가는 안용권이 결국 1위.

남자대표팀 이형근(45) 감독은 안용권을 '타고난 역사(力士)'라고 평가한다. 1백88센티미터, 1백42킬로그램의 다부진 체격. 하지만 거구에 걸맞지 않게 누구보다 부드러운 몸을 지녔다. 안용권은 주니어 시절부터 차세대 주자로 각광을 받았지만 2004 아테네올림픽 출전 이후 무릎 부상 후유증으로 슬럼프를 겪다가 상무 입대를 계기로 재기에 성공했다.

동아DB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이 2009 고양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여자 최중량급 용상 3차 시기에서 성공,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하며 환호하고 있다.

남자역도 1백5킬로그램 이상급은 올림픽 2연패(2000, 2004)를 달성한 '인간 기중기' 후세인 레자자데(31·이란)의 은퇴 이후 무주공산이었다.

안용권이 2012 런던올림픽까지 세계 정상을 지키려면 베이징올림픽 금·은메달리스트인 마티아스 슈타이너(독일)와 예프게니 치기셰프(러시아)의 벽을 넘어야 한다. 두 선수는 이번 2009 세계선수권대회에 불참했다.

안용권은 "이번 대회는 출전 선수들의 수준이 다소 낮았고, 나 또한 내 최고 기록(인상 2백6킬로그램, 용상 2백50킬로그램)을 들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세계기록을 목표로 하겠다"고 당찬 각오를 밝혔다. 세계기록은 레자자데의 인상 2백13킬로그램, 용상 2백63킬로그램, 합계 4백72킬로그램이다. G

글 · 전영희(스포츠동아 스포츠부 기자)

클린코리아 홍보대사 개그맨 송은이

"일회용 젓가락 안 쓰려 수저통 들고 다녀요"

송은이 씨는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내복을 입고 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개그맨 송은이 씨가 지난 9월 10일 환경부로부터 '클린코리아'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민관군 1만5천여 명과 함께 양평대교 부근 남한강 일대의 쓰레기를 치우며 본격적인 홍보대사 활동을 시작한 그를 만나 클린코리아 홍보대사로 나서게 된 배경과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었다.

"클린코리아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유가 송은이 씨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 때문이 아닐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웃음).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던 차에 귀한 제안이 들어와서 고맙게 수락했을 뿐입니다. 위촉해주신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터뷰 분위기를 유쾌하게 하기 위해 취재진이 던지는 농담에 개그맨 송은이(36) 씨는 시종일관 진지하게 대답했다. 개그맨들은 방송 녹화 때를 제외하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진지하다고 하던데 과연 그랬다. 자신이 맡은 부분에 언제나 성실하고 신중한 송은이 씨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그는 홍보대사에 위촉된 것과 관련해 "부스러기사랑나눔회(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봉사단체) 홍보대사 등 몇 군데 홍보대사를 하고 있지만 그냥 이름만 걸어놓는 홍보대사는 해본 적이 없다. 모두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수락을 한다"며 "이번 '클린코리아 홍보대사' 역시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고 그 역할에 부끄럽지 않은 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에 대해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서서 앞장서는 정도는 아니지만 실생활에서 지구환경을 해치지 않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래 전부터 일회용 컵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최근엔 일회용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수저통을 들고 다닙니다."

"빌려 쓰는 지구… 소중히 쓰고 물려줘야죠"

이동과 대기시간이 많은 연예인들은 일회용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자주 하게 된다. 게다가 늘 바쁜 스케줄 때문에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경우도 많다. 배달시켜 먹는 식사는 랩과 플라스틱 용기 등으로 쓰레기가 '한 보따리' 배출된다. 송은이 씨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사무실과 자주 가는 방송국 스튜디오는 물론 자동차에도 자신의 컵을 비치해 놓았다. 또한 귀찮아도 수저통을 가지고 다닌다.

"사실 일회용 컵과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것 정도가 지구환경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노력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를 따라 컵과 젓가락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한 동료나 후배들을 보면, '아, 내 작은 노력이 지구환경을 지키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클린코리아 홍보대사'로 위촉된 뒤엔 그의 지구환경 사랑 실천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그는 올해부터 내복을 입을 생각이다. 연예인들이 내복을 입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언제 카메라 플래시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항상 옷맵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겨울에도 얇은 옷을 입어야 할 때가 많다.

"특히 차 안에서 대기할 때, 옷을 얇게 입으면 자동차 공회전을 시킨 뒤 히터를 틀어놓게 돼요. 자동차 공회전은 에너지 낭비에 이산화탄소 배출까지, 이중삼중의 환경오염이죠. 그래서 차 안에 담요를 준비해두는데, 그래도 추위를 견딜 수 없을 때는 히터를 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겨울엔 야외촬영을 나갈 때 내복을 입고 버텨볼까 합니다."

외출할 때 소모되는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컴퓨터 등의 멀티탭을 끄는 것도 습관이 됐다. 이 밖에 바닷가나 강가로 야외촬영을 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근처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클린코리아 홍보대사를 맡은 뒤에 생긴 좋은 습관 중 하나다.

"도심에서 친환경적으로 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고, 쓰레기 줄이기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탄소 발생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등 도심에서 살면서도 환경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송은이 씨는 현재 '골드미스 다이어리'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주고 있다. 이와 연관된 결혼 계획에 관한 질문을 종종 받기도 한다.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송은이 씨의 '에코 라이프'는 어떻게 변할까.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마음 같아선 전원생활을 하며 텃밭도 가꾸는 등 적극적인 친환경 생활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일을 계속한다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도심에서 생태적으로 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요즘 '에코맘(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어머니)'이 대세잖아요.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고, 쓰레기 줄이기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탄소 발생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등 도심에서 살면서도 환경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아마 미혼인 지금보다는 적극적이 될 것 같네요.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라 내 아이에게 물려줄 터전이므로 지구를 잠시 빌려 쓴다는 생각이 더욱 피부로 다가올 테니까요."

TV와 라디오 등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밝은 웃음을 선사하는 개그맨 송은이 씨. 그가 보여주는 작지만 소중한 실천들이 아름답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환경부의 '클린코리아 홍보대사'로 위촉된 송은이 씨는 "동료와 팬들이 지구환경 사랑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댄스 뮤지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는 국적을 떠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춤을 주된 표현 수단으로 활용해 국내외에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11개국 공연 각광… 종로 전용극장 연일 매진

난타·점프 이어 '사춤'의 시대

세 사람의 성장 스토리를 춤으로 표현한 댄스 뮤지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이하 사춤)'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각광 받고 있다. 지난해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의 최고 히트작으로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사춤'은 해외 초청공연을 줄기차게 이어가며 국위 선양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여름 영국에서 열린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세계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한국 공연이 있다. '사춤'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댄스 뮤지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가 그것이다. 세 사람의 성장 스토리를 힙합, 재즈, 현대무용, 브레이크댄스, 디스코 등 다양한 춤으로 풀어낸 유쾌한 무언극이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 공통어인 춤을 주된 표현수단으로 선택한 '사춤'은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외국인들을 단숨에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공연을 관람한 호주 출신의 앨리 맥길 씨는 "음악도 좋지만 춤이 너무 멋졌다. 움직임이 크고 정교한 기술들이 돋보여 무척 흥미로웠다"고 감상 소감을 밝혔다.

프린지 페스티벌의 주요 공연장 중 하나인 조지 스퀘어 극장의 크리스 그래디 대표는 "극장 설립 이래 전 객석이 매진된 공연은 '사춤'이 처음이다. '사춤'은 서양의 공연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객을 매료시킨다. 한국 젊은이들이 뿜어내는 에너지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페스티벌 기간 내내 언론의 호평 또한 줄을 이었다. 냉정하기로 소문난 〈헤럴드〉지를 비롯해 영국 유수의 매체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는 쇼"라며 기꺼이 별 5개의 만점을 줬고, 공연 리뷰 전문 사이트인 〈원포리뷰닷컴〉과 〈페스티벌 리뷰〉는 각각 "관객을 절로 춤추게 하는 놀라운 쇼다" "지구인을 하나로 엮는 힘이자 세계적 언어인 춤을 솔직하게 표현해냈다"고 평했다.

세계 최대 공연축제 호평 후 각국 초청공연 이어져

'사춤'이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첫 출품에서 이처럼 놀라운 성공을 거둔 데는 거리 홍보의 힘이 컸다. '사춤' 팀은 하루 세 번씩 거리공연을 펼치며 관객의 이목을 끌었다.

공연 제작사인 두비컴의 최광일(46) 대표는 "축제 기간 내내 거리에서 공연 쇼케이스가 열리는데 그것만큼 좋은 홍보 수단은 없다고 생각했다. 페스티벌에 참가한 쟁쟁한 작품들과 경쟁

하려면 우리 콘텐츠를 많이 알리는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공연을 15분짜리로 압축해 거리 홍보전을 펼쳤는데 공연을 본 관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금세 입소문이 났다. 축제 기간 동안 무려 8번을 관람한 열성 팬도 있었다"고 전했다.

춤으로 스토리를 표현하고 다양한 춤의 멋과 가치를 살린 댄스 뮤지컬 '사춤'은 2004년 10월에 초연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연계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들여온 번역 뮤지컬이 대세를 이뤘기에 국내 순수 창작물인 '사춤'의 등장은 그야말로 당돌한 도전이었다.

최광일 대표는 "라이선스 작품들이 훌륭한 건 알지만 우리 정서와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그래서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싶은 갈망이 컸다. 하지만 뮤지컬 마니아는 그때나 지금이나 10만여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려면 국적을 떠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색다른 소재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춤이었다"고 '사춤' 제작 동기를 밝혔다.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적 척도이므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춤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오감으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세계 공통어라는 것이다.

세계 2만여 명의 공연 예술인이 모이는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은 국제무대로 진출하는 관문이자 교두보인 세계 최대 공연축제 중 하나다. 미국 브로드웨이로 진출한 '난타'와 '점프'도 이 페스티벌에서 호평을 받은 뒤 길이 열렸다. '사춤'도 지난해 페스티벌 참가 후 해외 각국에서 공연을 해달라는 러브콜이 줄을 잇고 있다.

올해만 해도 지난 8월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시작된 해외 초청공연은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9월), 러시아 모스크바(10월), 중국 쿤밍(11월)으로 이어졌다. 내년에도 1월 인도, 2월 캐나다, 3월 일본 공연이 잡혀 있다. 2007년 일본 초청공연 당시 도쿄 신주쿠 페이스극장에서 12회 전회 매진 기록을 세운 '사춤'의 인기 열풍은 지금 세계 곳곳에 번지고 있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전용극장 Tel **02-3676-7616 www.lovedance.co.kr**

동아DB

지난해 8월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여한 '사춤' 팀이 거리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춤' 연출가 최광일

"가장 볼 만한 문화상품으로 키우는 게 목표"

2004년 초연 후 지금까지 1천4백여 회 공연한 '사춤' 팀은 지난해 5월 창작공연 중 최단 기간인 7백 회 만에 서울 인사동에 전용극장을 오픈한 후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공연을 펼친다. 이를 위해 팀원들은 3시간에 걸친 몸 풀기와 댄스 연습을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12월 2일 전용극장 바로 위층에 자리한 '두비컴' 사무실에서 만난 최광일 대표는 "매일 전체 3백80석 중 3백석 이상의 유료 관객이 들어찬다. 지금은 외국인과 내국인 관객 비율이 4 대 6이지만 머지않아 7 대 3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중앙대에서 연극 연출을 전공한 후 공연사업에 매진해온 최 대표는 '사춤'의 기획과 제작은 물론 연출까지 도맡고 있다.

제작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난타'나 '점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한국의 순수 창작물이 국내에서 인정받고 시장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춤' 초연 때도 반응이 극과 극이었습니다. '심장을 뛰게 하는 통쾌한 공연이었다'는 호평과 '어설픈 창작은 죄악이다'라는 혹평이 공존했죠.

우리 손으로 만든 공연은 외국 작품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을 깨기까지가 섭섭하고 힘들었습니다.

'사춤'의 차별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보통 공연의 소재가 되는 춤은 보는 춤이 대부분입니다. 발레, 재즈, 힙합, 비보잉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춤'은 관객과 호흡을 맞추며 함께 춤을 즐기게 합니다. '사춤'의 관객들은 객석에 가만히 앉아 춤을 감상하지 않습니다. 공연팀의 일원이 되어 온몸으로 공연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축제 분위기를 만들지요.

'사춤'의 성공 비결은.

무엇보다 구성이 독특하고 흥겨운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해 영국의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사춤'을 보고 호평에 인색하기로 유명한 〈헤럴드〉지가 이렇게 평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책과 철학에서 공연 소재를 찾지만 한국은 길거리와 젊음에서 그것을 찾아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사춤'을 탄생시켰다"고요. 한국에서 큰 행사가 열릴 때마다 '사춤'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상품으로 소개되는 것도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연출 겸 제작자로서 앞으로의 포부는.

'사춤'은 지금까지 세계 11개국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사춤' 공연을 펼쳐 세계만방에 한국을 알리는 것, '사춤'을 한국에서 가장 볼 만한 문화상품으로 키우는 것이 저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7점 만점에 7점" 한국음식 우주로 가다

러시아 화성 탐사 모의실험에 불고기 등 우주식 6종 공급

지난해 4월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씨가 우주에서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한국음식으로 식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또 한 번 한국형 우주식품 6종이 러시아 화성 탐사 모의실험 프로젝트 'MARS-500'에 공급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짜고 맵고 쓰기도 하지만 한번 맛을 들이면 다시 찾는다는 한국의 전통음식.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면 한번쯤 '불고기' '김치' '비빔밥'을 찾을 정도로 세계적인 음식이 됐다. 지상 3백50킬로미터 상공을 도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머물고 있는 우주인들도 이미 그 맛에 후한 점수를 줄 정도다.

지난해 4월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씨가 우주로 가져간 볶은 김치와 라면, 수정과는 ISS에 머물던 미국과 러시아 우주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나날이 세계로, ISS로 뻗어가는 우리 전통 맛의 다음 목표는 어디가 될까. 다소 공상과학(SF) 영화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화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초 시작되는 러시아 화성 탐사 모의실험에 불고기를 포함해 우리 토종 식품이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들 식품이 외국 우주인들에게 먹기 좋다는 합격점을 받게 되면 2030년쯤 추진될 실제 유인(有人) 화성 탐사에 정식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는 러시아가 진행하고 있는 화성 탐사 모의 실험프로젝트 'MARS-500'에 김치, 수정과, 한우 불고기, 전주비빔밥, 미역국, 부안 참뽕음료 등 한국 식품 6종을 공급하기로 최근 러시아연방국립과학센터 산하 생의학연구소(IBMP)와 계약을 체결했다.

방사선 조사 기술 이용… 외국 우주인들에 인기 만점

MARS-500은 러시아가 2030년 화성에 유인 탐사선을 보내는 것에 앞서 추진 중인 모의실험으로 내년 3월부터 시작된다. 러시아와 유럽연합, 아프리카에서 선발된 우주인 6명은 화성 탐사에 필요한 최소 시간인 5백20일간 밀폐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며 장시간 우주 비행에서 겪게 될 각종 생리문제를 측정하게 된다.

생리학자들은 화성까지 2백50일, 체류 기간 30일, 다시 지구까지 2백40일 정도 소요되는 장거리 탐사에서 겪을 가장 큰 스트레스는 식사와 성생활 문제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음식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주 선진국들은 식단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문제는 맛이다. 중력이 없고 우주 방사선에 노출된 우주 환경에서는 미각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맛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우주식품이 이륙 중량을 줄이고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 동결 건조로 만들다 보니 음식의 맛과 신선도는 더 떨어지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ISS에서 돌아온 대다수 우주인들은 여러 고충 가운데 1순위로 식사문제를 꼽고 있다. 한국이 이번에 공급할 우주식품은 이 부분에 주목했다.

한국 우주식품의 특징은 맛과 씹는 감이 느껴지도록 수분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김치도 국물을 함께 넣어 맛은 최대한 살리면서 수분은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불고기도 육질(肉質)을 느낄 수 있도록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 우주식품의 특징은 맛과 씹는 감이 느껴지도록 수분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국물 맛이 생명인 김치도 동결 건조하지 않고 국물을 함께 넣었다. 맛을 최대한 살리면서 수분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불고기도 딱딱한 육포 형태가 아닌 육질(肉質)을 느낄 수 있도록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 고추장 역시 마찬가지다. 그 뒤엔 '방사선 조사(照射)' 기술이라는 숨은 일등공신이 있다.

발효식품이 많은 한국음식을 우주음식으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많다. 특히 미생물은 우주선 같은 밀폐공간에서 변형될 경우 치명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음식이 쉽사리 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량의 방사선을 짧게 쪼이면 미생물만을 골라 없앨 수 있어 장기간 보존 가능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 물론 맛이 떨어지거나 치명적인 방사능이 남지도 않는다.

한국은 지난해 우주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기술을 활용한 김치를 포함해 모두 10종의 우리 식품을 우주식품으로 공급한 적이 있다. 특히 당시 김치와 수정과는 이 씨가 ISS에 머무는 동안 실시한 맛 평가에서 7점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받았을 정도로 외국 우주인에게 반응이 좋았다.

새로 추가된 불고기와 비빔밥, 미역국, 참뽕음료 역시 기대

미국항공우주국 제공

지난해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씨와 함께 소유즈호에 탑승했던 러시아 승무원들이 한국 우주식품을 먹고 있다.

김치, 비빔밥(사진 오른쪽) 등 한국 우주식품은 수분이 함유돼 식감이 좋아 맛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를 모으고 있다. 이들 식품은 따뜻한 물만 넣으면 조리가 되거나 포장을 벗기면 먹을 수 있는 등 좁은 우주공간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들었다. 이미 이름을 알린 불고기나 김치, 비빔밥 외에도 미역국은 방사선 경감 효과가 좋아 건강을 생각하는 다른 나라 우주인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우주식품은 IBMP의 평가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석 달간 모의실험에 참여한 우주인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실험에서 합격점을 받으면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ISS에 정식으로 우주식품을 공급하는 세 번째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미국은 약 1백80~2백 개, 러시아는 약 1백50개의 우주음식을 ISS에 머물고 있는 우주인에게 공급하고 있다.

우주식품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면 우리 전통음식의 위상도 올라갈 전망이다. 미국의 피자헛이나 펩시콜라 등 세계적인 식품 전문회사들도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 우주식품 등록을 추진할 정도로 후광효과가 크다. 특히 불고기에는 국내 농업회사 전북이 공급한 '총체보리 한우'가, 비빔밥은 전주시와 전주비빔밥연합회가 만든 전통 조리법이 사용되는 등 최근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 전통음식의 인지도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이주운 책임연구원은 "우주 개발 경쟁에서 우주 생활 분야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한국도 우주 개발에 늦게 뛰어들었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G

글 · 박근태(동아사이언스 기자)

MARS-500에 공급되는 한국 우주식품

식품명	형태
김치	장기간 보관하려면 발효 미생물을 조절해야 함. 신선도와 장기 저장을 위해 방사선 조사. 원터치 캔 형태로 김치 국물이 무중력 공간에서 날아다니지 않도록 특수 패드가 들어 있음.
수정과	분말 형태로 물만 부어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 우주인의 식욕을 높이기 위해 개발.
불고기	멸균을 위해 약간의 방사선을 쪼임. 점성이 높은 불고기 소스에 양념된 스테이크 형태.
비빔밥	전주비빔밥의 조리법으로 만듦. 섭씨 70도 끓는 물을 부으면 찰진 밥과 채소가 됨.
미역국	기장 미역에 따끈한 물을 부어 마시는 형태. 방사선 방호 효과가 뛰어나 우주 환경에 노출된 우주인에게 좋음.
참뽕음료	전북 부안 명물 참뽕 추출 분말에 찬물을 부어 마시는 방식.

충북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제비봉 정상에서 내려다본 남한강의 절경.

우리 민족의 젖줄이라고 일컬어지는 한강의 발원지는 어디인가. 〈세종실록지리지〉 〈택리지〉를 비롯한 옛 문헌들에는 '오대산 우통수'라고 기록돼 있지만 실측 결과 강원 태백시 창죽동 검용소가 우통수보다 더 길어 지금은 검용소를 한강의 발원지로 보고 있다. 하루 2천여 톤가량의 수원(水源)이 석회암반을 뚫고 나온다는 검용소는 전설에 의하면 서해에 살던 이무기가 용이 되려고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몸부림친 흔적이라고 한다.

흐르는 시냇물이 모이고 모여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광동댐에 이르고, 임계면 낙천리를 지난다. 골지천변에 세워진 구미정은 조선 숙종 때 이조참의를 지냈던 이치가 기사사화(己巳士禍)를 피하기 위해 봉산리에 은거하면서 세웠다. 정자를 중심으로 주위 경치가 아홉 가지 특색이 있다고 하는데, 기암절벽 위에 세워져 그 풍경이 매우 아름답다.

노일마을과 봉정리를 지난 강물이 유장하게 흘러서 송천과 골지천이 만나는 아우라지에 이르는데, 이곳은 정선아리랑의 시원지(始原地)다. 정선아라리가 처음 불리기 시작한 것은 조선 초기인 5백여 년 전부터였다고 한다. 고려왕조를 섬기던 선비들이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성을 다짐하면서 깊은 산골인 정선 두문동에 은신하다가 지금의 남면 낙동리 거칠현동(居七賢洞)으로 옮겨 살았다. 그들이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본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구슬프게 살아가는 모습을 한시(漢詩)로 지어 읊었다고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정선 떼 한 바닥이면 황소도 샀던 옛 시절

강물은 구슬픈 아우라지 노랫소리를 안고 정선을 지나 동강 입구인 광하리에 이른다. 영월읍을 중심으로 동쪽은 동강, 서쪽은 서강, 혹은 숫캉 암캉이라고 부르는데 동강에는 제1경이라는 어라연을 비롯한 열두 곳의 아름다운 경치가 자리하고 있다.

정선군수나 영월군수 월급이 20원일 때 정선에서 떼 한 바닥 타고 가서 그것을 주인한테 넘기면 단번에 30원을 받았다. 보통 떼꾼들이 정선에서 서울을 한 번 다녀오면 그 돈으로 큰 황소도 살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떼돈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떼꾼들의 노랫소리가 사라진 동강을 지나면 비운의 임금 단종

문화사학자 신정일 에세이

열 걸음에 아홉 번 돌아보는 한강

강은 나무와 같다. 수많은 지류들이 셀 수도 없는 가지가 되어 한강이라는 나무를 이뤘다.
그 가지가지마다 우리 민족의 삶이 배어 있고, 아름다움이 묻어 있다.
문화사학자 신정일 씨가 한강을 따라 흐르는 역사와 문화를 짚었다.

에 얽힌 이야기가 서리고 서린 고장 영월에 이른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옵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더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예놋다"라는 시조를 읊조리며 흘러간 영월읍 하송리에서 동강과 서강이 만나 남한강이 된다.

영월을 지난 강물은 단양을 지나며 한 폭의 산수화가 된다. 1894년 봄에 서울에서 이곳까지 배를 타고 답사를 왔던 사람이 영국 왕실의 지리학자인 버드 비숍 여사였다. 그가 남한강의 선박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75척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며, 전 구간에 걸쳐 다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무료 여객선 47척이 왕래하고 있다.

단양팔경 중의 한 곳인 도담삼봉을 지난 물길은 충주호, 장호나루에 이른다. 조선 중기 문장가인 김일손이 "열 걸음을 걷는 동안에 아홉 번을 뒤돌아볼 만큼 아름다운 곳"이라고 격찬했던 청풍 일대가 충주댐에 수몰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충주댐을 지나면 탄금대에 이르고 바로 아래 부근에서 속리산에서 발원한 달천을 만난다. 신라 문성왕 때에 나라의 중앙을 표시하기 위해 세웠다고 전해지는 중앙탑을 지나면 남한강변에 목계나루가 있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볕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신경림 시인의 절창 '목계나루'로 남아 있는 목계는 조선 후기에 마포 다음가는 한강의 주요 포구였다. 소금배나 짐배가 들어오면 아무 때나 장이 섰고, 장이 섰다 하면 짧으면 사흘, 길면 닷새나 이레씩 섰던 목계장터는 1920년대 후반 서울에서 충주 간 충북선 열차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수송 기능이 완전히 끊어졌다. 1973년에 목계교가 놓이면서 목계나루에 나룻배도 사라진 채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남한강의 여러 물굽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가 신륵사(神勒寺) 부근일 것이다. 이 지역 사람들은 여강(驪江)이라 부르는데 주변의 풍경이 하도 수려해 예부터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조선 초기 학자였던 김수온은 〈신륵사기〉에서 "여주는 국도의 상류지역에 있다"고 썼다. 여기서 국도는 한강의 뱃길을 말한다. 신작로나 철길이 뚫리기 전까지는 경상도의 새재를 넘어온 물산이나 강원도, 충청도에서 생산된 물산들이 한강 뱃길을 타고 서울에 닿았으므로 한강의 뱃길을 '나라의 길'로 부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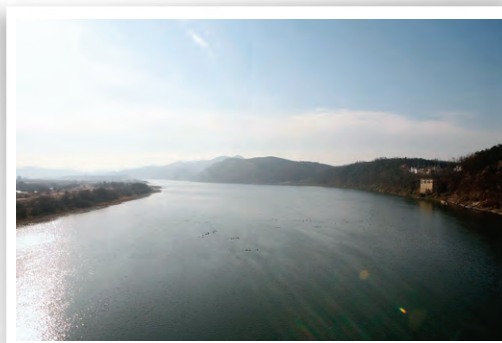
정선 아우라지에서 띄운 뗏목이 물이 많은 장마철이면 서울까지 사흘이면 도착했다는데 1974년 팔당댐이 생기고 이어 1985년에 충주댐이 만들어지면서 '나라의 길'이라고 일컬어지던 뱃길은 아예 사라지고 말았다.

팔당대교 아래 미사리 부근에서 한강의 마지막 여울을 볼 수가 있다. 강의 생명은 여울이고, 여울이 많을수록 강은 건강하다.

한강유역은 삼국시대의 각축장이었다. 삼국의 흥망성쇠가 연결돼 있었다. 한강유역이 사람과 물자를 대주는 중요한 구실을 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이 개성에서 서울로 도읍을 옮긴 뒤로 더욱 중요성이 더해졌다.

조선왕조 오백 년 사직을 지켜보았던 서울을 흐르는 한강에 얼마나 많은 나루가 있었던가. 광나루, 송파나루, 한강진나루, 동재기나루, 마포나루, 양화나루 등 수없이 많은 나루들을 통해 사람들이 오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다리와 남과 북에 개설된 강변도로를 통해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기우 속 희미해진 충주댐 · 조강나루 흔적도

서울 부근을 흐르는 한강에서 사라진 것이 바로 섬이다. 3백60만 평쯤 되던 잠실섬, 40만 평쯤 되던 부리섬, 옥수동 부근에 있었던 저자도, 밤섬, 선유도 등이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사라지거나 겨우 그 흔적만 남기고 있다. "모기가 오줌만 싸도 넘친다" "매미가 하품만 해도 넘친다"고 걱정했던 잠실 섬사람들의 홍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이가 몇이나 있을까.

행주산성을 지난 한강은 임진강을 받아들인 뒤 애기봉 쪽을 향해 흐른다. 애기봉은 일명 쑥갓머리산으로 높이 1백43미터다. 평안감사와 사랑을 나누었던 애기의 슬픈 사연이 서려 있는 애기봉 아래에 한강의 큰 나루였던 조강포가 있었다.

조강나루는 통진에서 개성으로 건너던 큰 나루였다. 조강나루는 한강을 건너기 위해 나룻배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개성이나 한양으로 세미(稅米)를 싣고 가기 위해 만조시간을 기다리는 사공들이 모이는 큰 포구였다. 그러나 1953년 휴전협정에 의해 조강포는 잠정 폐지됐고 현재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 기름진 들판이 되고 말았다.

경기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건너편에 있는 유도 부근에서 한강은 강으로서의 생을 마감하고 바다로 들어간다.

강에 기대어 사는 이들이여, 유장한 강을 따라 천천히 걸어보라. 걷다 보면 강물이 그대에게 말을 걸어올 것이다, "나 아프다"고. 인간에 의해 파괴되고 오염된 강물이 머물지 않고 흐르면서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것을 바라보라. 강을 따라 걸으며 강이 사람과 하나라는 것을 느껴보라. G

글 · 신정일(문화사학자, 우리땅걷기모임 이사장)

4대강 살리기
제 33 화
z z
글·이연수 그림·이호

….
금개구리
무미목 개구리과
학명: Rana plancyi choseni

날 추운데 왜 여태 겨울잠 안 자구 돌아다녀유?
표범장지뱀
뱀목 장지뱀과
학명: Eremias argus

아, 지금 잠이 오게 생겼슈?

이 구역에서 준설 공사 한다잖유. 자는데 와서 홀랑 다 뒤집으면 어떡해유?
정말유?
헉

어디로 가쥬?
딱히 갈 데가 없는디….
거기 어때유?
아, 거긴 너무 멀쥬~

태평하게 뭐 해유? 지금 큰 일 났슈~
남생이
거북목 남생이과
학명: Geoclemys reevesii

잠자기 좋은 데가 있다기에 그리 가는디~

공사판 시끄러워 못 살까봐 인간들이 우리 살라고 돌무더기 쌓아놓고 자연굴도 만들어 놓는다던디~
참말이유?
앗싸

겨울 철새들 때문에 겨울엔 공사도 최대한 조용히….

같이 가유~
그러다 냉동 남생이 되겄슈! 서둘러유!

시각장애인에 사진 지도 상명대 양종훈 교수

"사진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 나눕니다"

시각장애인이 사진을 찍는다? 누구나 고개를 갸웃할 법하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사진을 찍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이가 있다. 상명대 양종훈 교수.
그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마음으로 세상을 읽는 법을 가르쳐 세상과 소통하게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양종훈 교수(왼쪽)가 시각장애인에게 카메라 다루는 법을 지도하고 있다.

"양종훈입니다." 밝은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며 건넨 그의 명함을 받는 순간 손의 느낌이 달랐다. 점자였다. 사진작가이자 상명대 영상미디어학과 교수인 그의 명함에 점자를 새긴 것은 3년 전 매주말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진교실을 열면서부터다.

"세상과 소통할 방법을 찾은 것이죠. 그분들은 사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진을 촬영할 때 프레임(틀) 속에 뭔가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자유롭다. 시각장애인들은 집중력과 기억력이 탁월하다. 손으로 만지고 느낀다.

영상미디어학과 학생들이 멘터가 되어 이들과 함께 작업에 참여하면 한두 번 카메라 실무교육만으로 금방 익힌다. 사진 촬영 전 멘터들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사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준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며 느낄 수 있게 한 다음 촬영에 들어간다.

"시각장애인들은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럴 때 만족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초점이 맞다 안 맞다에 대한 기준은 그들의 교본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선하고, 오히려 저와 봉사하는 학생들이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보통사람들은 눈에만 의지해 사진을 찍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상황을 마음으로 상상한 뒤 옛날의 경험 등을 담아서 신중하게 찍는다. 그는 시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한다는 희망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사진에서는 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한다.

마음과 귀로 촬영… 사진전시회도 열어

양 교수와 그가 지도하는 시각장애인들은 북한산 산행을 통해 마음과 귀로 북한산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내기도 했으며 한강시민공원, 청계천 등 서울 곳곳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양 교수는 20여 년 전 미국 유학시절 시각장애인인 전문직 부부의 프로필을 만들면서 그 남편에게 사진을 찍어보게 한 이후 시각장애인도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카메라가 문제였다. 기술자나 과학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양 교수는 기다렸다. 그런데 조작이 간편한 디지털 카메라의 출현으로 그 꿈이 이뤄졌다.

"시각장애인이 사진을 찍는다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냉소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주위의 따뜻한 손길들이 이어지면서 기운을 얻고 있다"는 양 교수. 그가 지도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사진작품을 모아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서울 대학로 상명대 예술디자인센터 1층 갤러리에서 '마음으로 보는 세상'이라는 사진전시회를 열었다. 이들의 사진전은 2007년 동아미술제 전시기획 부문에 낸 제안서가 통과되면서 시작돼 올해로 3회째다.

시각장애인이 찍은 사진은 틀에 얽매이지 않아 묘한 감동을 자아낸다. 이들이 찍은 사진은 전시회를 거쳐 내년 서울시 달력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후 영문으로 제작해 유엔본부에 홍보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G

글 · 강선임 객원기자

어린이 문화해설사 양지초교 최희 양

"나이는 어려도 나라 알리는 데는 1등"

체구는 작고 나이는 어리지만 한국을 알리는 데만큼은 어른 못지않은 소녀가 있다.
바로 '전국 학생 영어 문화유산해설 콘테스트'에서 대학생들을 제치고 1등한 최희 양이다.
어린이 문화해설사로도 활동하는 최 양에게서 우리나라 역사 사랑을 들었다.

최희 양은 어린이 문화해설사로 활동하며 세계 속 한국을 알리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다.

"저는 중국에서 온 소수민족 대표입니다. 우리는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어요. 우리가 가져다 쓸 만한 좋은 글자 없을까요?"

"딱 좋은 문자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난 11월 14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전국 학생 영어 문화유산해설 콘테스트'의 한 장면이다. 이날 경기 안산시 양지초등학교 4학년 최희 양은 친구 정수민(인헌초교 4년) 양과 짝을 이뤄 '한글'을 소개하는 발표로 대상을 수상했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국제교류문화진흥원이 주관한 이 대회에서 중고등부 대학부 언니, 오빠들을 물리치고 대상을 차지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문자로 채택했다는 소식을 뉴스와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고 무척 인상적이어서 한글을 소개하는 내용을 발표하게 됐어요."

최 양은 중국에서 글자를 구하러 '세계 문자전시회'에 온 소수민족 역을 맡고 수민 양은 한글에 대해 소개하는 안내원 역을 맡아 5분짜리 발표극을 만들었다. 한글이 컴퓨터 키보드 시스템에 가장 적합해 정보기술(IT) 시대에 잘 어울리는 문자라는 특징을 강조해 대본을 짠 다음 평소 자신들이 쓰는 쉬운 영어 표현으로 대사를 다듬었다.

"막연하게 한글이 우수한 문자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대회를 준비하면서 왜 그런지 자세히 알게 됐고 정말 한글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최 양은 지난해부터 외국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고 있는 어린이 문화해설사다. 사극 드라마 〈이산〉과 〈대왕 세종〉을 즐겨 보면서 우리 역사에 관심이 많아졌다. 평소에도 한국 역사책을 너무 많이 봐 지나치게 '편식'하는 게 아닌가라는 엄마의 걱정을 들을 정도였다.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잘했고 중국어 특성화 학교인 양지초교에서 학교 대표로 중국어 대회에 나가 일등을 한 적도 있는 최 양이 외국어 실력과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활용할 기회를 두루 찾다 만난 곳이 국제교류문화진흥원의 어린이 문화해설사 프로그램이었다.

"지난해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문화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외국인들 앞에서 영어로 말하는 게 무척 떨렸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고 흥미를 느끼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재미있고 좋아요."

"장래희망? 대한민국 훌륭한 점 알리는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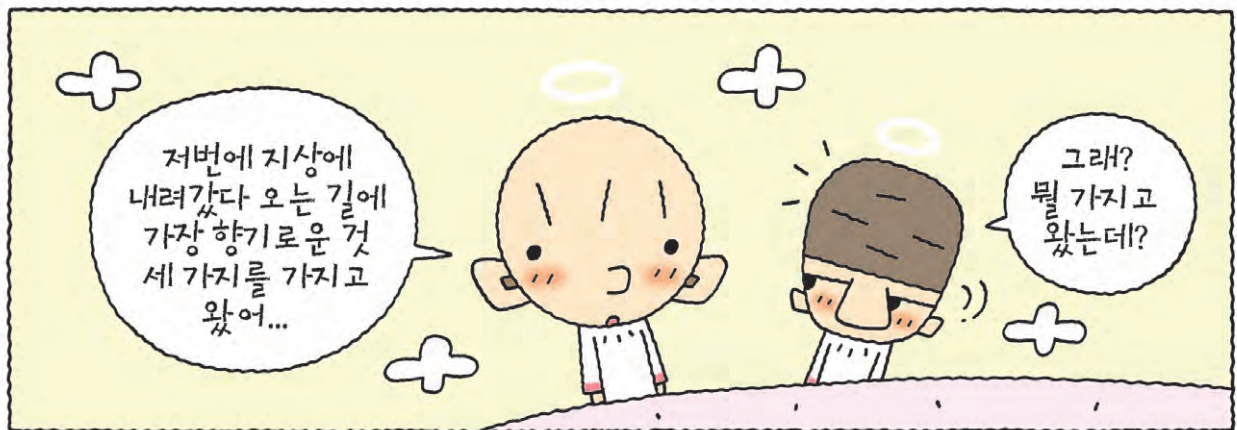
문화유산 어린이 해설사로서 최 양은 혼자 관련자료 홈페이지를 찾아 공부하고 가이드라인과 동선을 짜가며 대본을 직접 만든다. 올해는 6·25전쟁 직후 주한 미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했던 이들의 한국 재방문 때 해설을 맡았던 경험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말한다.

"6·25전쟁 직후 가난했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눈부시게 달라진 한국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며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최 양의 장래 희망은 '대통령'이다. 그것도 평범한 대통령이 아닌 "우리나라의 훌륭한 점을 세계 곳곳에 널리 알리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앞으로 최 양은 서울 종로구 북촌에 생기는 동양 박물관이나 서대문 역사박물관에서 뽑는 어린이 해설사에도 응모할 계획이다. G

글 · 오진영 객원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글과 그림 · 최영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그곳은 바로 어머니의 품속이다.
– 선다 싱(인도의 기독교 성자)

여수 금오도 대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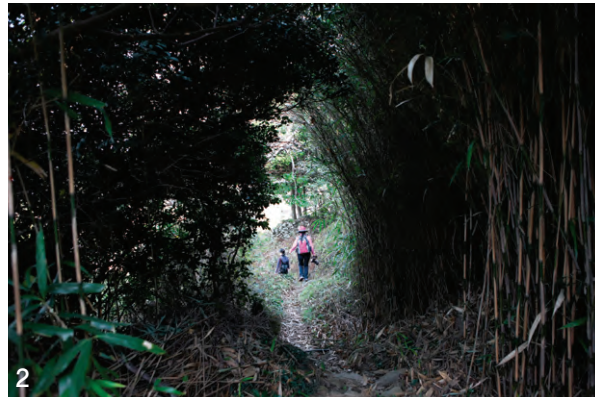
섬인가 산인가 나는 걸었네

섬은 바다에 떠 있으면서도 그 실체는 산이다. 점성(粘性)이 약한 용암의 분출로 생겨난 마라도, 가파도 등 제주도의 몇몇 섬을 제외한 대부분의 섬들은 하나의 산체(山體)를 이룬다. 예컨대 한라산이 제주도이고, 성인봉은 울릉도의 전부나 다름없다. 무수한 섬들이 떠 있는 다도해의 어느 섬 꼭대기에 올라서면 크고 작은 산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흩뿌려진 장관을 조망할 수 있다. 여수 돌산도의 남쪽 바다에 우뚝한 대부산(大付山, 3백82미터)도 다도해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천연 전망대다.

매봉산, 송고산, 대대산 등으로도 불리는 대부산은 금오도(金鰲島)의 최고봉이다. 섬의 형태가 자라를 닮았다는 금오도는 자신을 비롯해 안도, 연도, 소리도, 화태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 대소횡간도 등 37개 섬으로 구성된 금오열도의 좌장(座長)이자 여수시 남면의 면소재지다. 면적 27.481제곱킬로미터, 해안선 길이 64.5킬로미터인 금오도에는 섬의 규모에 비해 큰 산이 많다. 대부산뿐 아니라 망산(3백44미터), 옥녀봉(2백61미터), 상산(2백7미터), 중봉(2백31미터) 등의 산봉우리들이 즐비하게 솟아 있다. 해발고도는 2백~3백 미터대에 지나지 않지만, 산행 기점이 바닷가에 자리해 있어 산행 소요시간과 코스 난이도는 육지의 5백~6백 미터급에 뒤지지 않는다.

대부산 종주 총길이 11km · 약 5시간 걸려

섬 산행은 아무리 등산코스가 험준하거나 길어도 그리 지루하지 않다. 어디서나 눈길만 돌리면 상쾌한 바다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때문이다. 산길을 걸으면서 바다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섬 산행의 가장 큰 매력이다. 그것에 매료되면 아무리 멀고 외딴 섬이라도 천 리 길의 다리품도 아깝지 않다. 여수 금오도가 바로 그런 섬이다.

대부산 종주코스의 총길이는 약 11킬로미터에 이른다. 송유리의 함구미마을을 출발해 대부산, 문바위, 칼이봉, 느진목, 옥

1 금오열도 일대의 다도해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는 바윗길.
2 여천마을 부근의 내리막길에서 만나는 대나무 숲길.
3 바람에 진한 향기를 흘리는 함구미마을의 유자나무.

대부산은 숲이 좋다. 그런데 수종은 의외로 단조롭다. 서어나무 일색이다. '숲 속의 보디빌더'라는 별명을 가진 서어나무의 줄기는 가지런한 원형이 아니라 제멋대로 뒤틀려 있다.

녀봉, 검바위 등을 거쳐 면소재지인 우학리로 하산하는 이 코스는 5시간 정도 소요된다. 섬 산행치고는 거리와 소요시간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필자 일행은 함구미마을에서 대부산, 문바위를 거쳐 여천마을로 하산하는 코스를 선택했다. 총길이 5.7킬로미터의 이 코스를 섭렵하는 데는 3시간가량 걸렸다.

산행 기점인 함구미마을부터 능선길이 시작되는 팔각전망대까지는 제법 가파른 오르막길이 꾸준히 계속된다. 숨은 가빠도 마음은 가볍다. 돌담길, 대숲길, 억새밭길, 너덜길, 서어나무 숲길 등이 번갈아 나타나 다채로운 풍광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대부산은 숲이 좋다. 그런데 수종은 의외로 단조롭다. 하얀색 줄기 때문에 자작나무로 오인받기 십상인 서어나무 일색이다. 자작나뭇과의 갈잎큰키나무(낙엽교목)에 속하는 서어나무는 우리나라 어디서나 흔하다. 그런데도 이 나무를 아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쓸모가 많지 않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까닭이다. '숲 속의 보디빌더'라는 별명을 가진 서어나무의 줄기는 가지런한 원형이 아니라 제멋대로 뒤틀려 있다. 판재를 만들기도 마땅치 않고 공예품의 재료로 활용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간혹 표고버섯을 기르는 밑나무로 쓰이기도 하지만, 참나무보다 버섯 생산량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한다.

서어나무는 인간에게 그다지 쓸모가 있지는 않아도 숲 생태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극상림을 이루는 나무이기 때문이다. 같은 장소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식물군집의 변화를 천이(遷移)라고 한다. 그리고 천이의 마지막 단계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숲을 '극상림(極相林)'이라고 한다. 대부산 곳곳에 서어나무가 빼곡한 것을 보면 산 전체가 극상림을 이루는 듯했다. 오히려 참나무류, 소나무, 진달래 등과 같이 우리나라의 산지에 지천으로 자라는 나무들이 여기서는 흔치 않아 보였다.

함구미마을을 출발한 지 1시간쯤 지나서 빽빽한 서어나무 숲을 빠져나오면 팔각전망대에 당도한다. 최근에 세워진 이 전망

대에 올라서면 일망무제의 다도해 풍광이 시원스레 펼쳐진다. 산행의 출발지인 함구미마을이 발아래 빤히 내려다보이고, 바다 건너편에는 개도, 월호도, 대·소두리도, 화태도, 돌산도가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서남쪽 바다의 고흥 외나로도에 들어선 나로우주센터와 북쪽의 여수시내 아파트 건물들까지도 아스라이 보인다. 가벼운 전율마저 느껴질 만큼 조망이 탁월하다.

서어나무 숲 절경에 훌륭한 바다낚시 포인트도

팔각전망대부터는 휘파람이 절로 나올 정도로 평탄한 능선길이 이어진다. 이 능선길은 울창한 서어나무 숲길과 전망 좋은 바윗길을 번갈아 지나게 된다. 간간이 나타나는 바윗길 구간에서는 산과 바다를 동시에 감상하며 걷는 호사도 누릴 수 있다. 바다 쪽은 급경사의 바위벼랑이지만, 공포감 대신에 전망의 상쾌함만 오롯이 느껴진다. 다채로운 형태의 섬과 배들을 껴안은 다도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맑아지고 마음까지 평온해지는 듯하다.

전망대에서 약 20분 거리에 자리한 대부산의 정상은 아주 평범하다. 서어나무숲 한복판에 서 있는 안내표지판만 아니라면 이 섬의 최고봉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기도 어렵다. 잡목이 우거져서 시야도 답답하다. 그래도 아쉬움은 없다. 이 능선길에서는 천연의 바다전망대를 수시로 만날 수 있다.

모처럼 휴가를 내고 어렵게 이곳을 찾았다는 이주영(33) 씨는 "내내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면서 "다시 서울로 돌아가면 이 산길을 걸으면서 느끼고 감상했던 겨울바람과 다도해 바다가 무척 그리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산 정상에서 2.1킬로미터 거리에는 문바위라는 절경이 있다. 커다란 바위 두 개가 양쪽에 솟아 있는 모습이 문처럼 생겼다. 이 바위의 북쪽에는 필자 일행의 산행 종점인 여천마을이 있고, 남쪽 사면에는 주민들이 염소를 기르는 목초지가 형성돼 있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 옛날 금오도에는 사슴이 떼 지어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조선 말기에는 이곳에 국영 사슴목장이 설치됐다. 또한 섬 전체를 봉산(封山)으로 지정해 일반 백성의 출입과 벌목을 엄격히 금지하고, 전라좌수영으로 하여금 이곳의 소나무숲을 보호하도록 명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금오도에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울창했다고 한다. 하지만 고종 2년(1865년) 경복궁 중건을 위해 수백 주의 소나무 고목을 벌목해간 뒤로 큰 소나무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게다가 이웃 섬인 안도

에 큰불이 나는 바람에 그곳 주민들이 금오도로 건너와 화전을 일구기 시작하자 나라에서는 마침내 1885년에 봉산을 해제하고 개간을 허용했다.

문바위를 뒤로하고 15분쯤 걸으니 여천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갈리는 삼거리 쉼터에 당도했다. 여기서 해안도로변에 자리한 여천마을까지는 8백미터 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길지 않는 그 길에서 때늦은 가을 단풍과 때 이른 겨울 동백꽃을 동시에 구경했다. 이미 계절은 겨울 깊숙한 곳에 들어섰는데도 이 섬에서는 겨울의 풍경과 정취를 좀체 찾아볼 수 없었다. 해안도로변의 양지바른 밭에는 마늘, 시금치, 배추 등의 채소가 파릇했다.

멀리 금오도까지 간 김에 산행만 즐기고 돌아오기에는 너무나 아쉽다. 사실 금오도는 괜찮은 등산코스보다도 훌륭한 바다낚시 포인트가 많기로 유명한 섬이다. 대부분 해안이 깎아지른 암벽으로 이루어진 데다 해식동굴이 많고 수심이 깊어서 감성돔, 벵에돔, 농어 등과 같은 고급 어종이 많이 서식한다. 특히 금오도 주변의 바다는 여수 연안을 오르내리는 감성돔이 반드시 거치는 길목이자 산란장이어서 대물을 노리는 '꾼'들의 발길이 연중 끊이지 않는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1 팔각전망대에서 바라본 대부산 정상과 서어나무 군락.
2 대부산 능선의 팔각전망대에서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등산객들.
3 대부산 등산로의 출발 기점에 자리한 함구미마을의 고풍스런 돌담길.

여행 정보

숙박 면소재지인 우학리에 명가모텔(061-665-9520)이 있다. 돈음벌 펜션(061-665-4599), 안골민박(061-665-9690), 여남식당(061-665--9546), 중앙식당(061-665-1212), 상록식당(061-665-9506) 등의 민박집에서도 숙박이 가능하다.

맛집 우학리의 여남식당(061-665-9546)은 해물정식, 생선회, 매운탕, 아귀찜, 낙지볶음 등의 해물요리를 잘하는 집이다. 특히 금오도 주변의 청정해역에서 채취하거나 잡은 굴, 참꼬막, 고동, 간재미, 장대, 꼴뚜기, 학꽁치, 놀래미 등의 해산물로 푸짐한 해물정식이 인기 있다. 이밖에도 면소재지에는 우리식당(061-665-9546), 중앙식당(061-665-1212), 상록식당(061-665-9506) 등의 음식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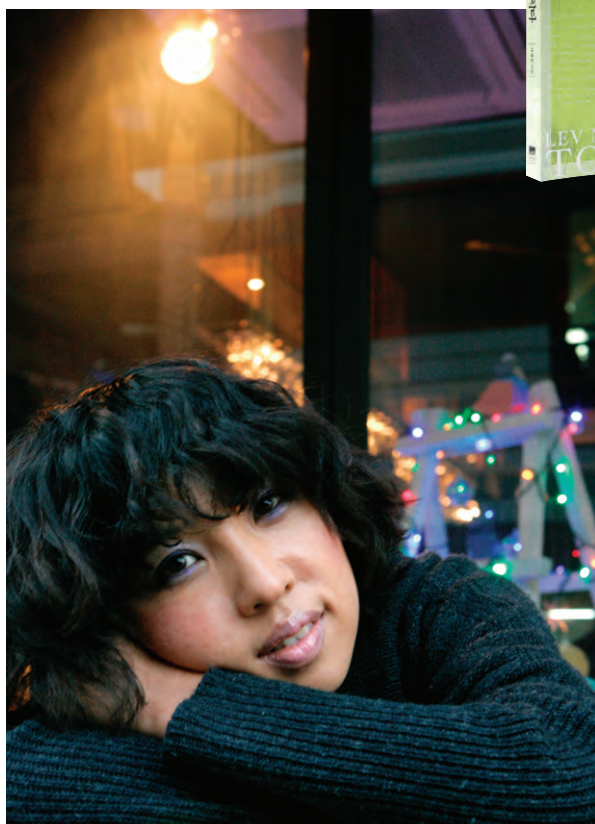
가는 길 **승용차** | 남해고속도로 순천IC(17번 국도) → 여수시내 중앙동로터리 → 중앙동 선착장

여객선 | 여수시 중앙동파출소 옆 선착장과 돌산도의 신기항에서 한림해운(061-666-8092), 화신해운(061-665-0011) 소속의 금오도행 카페리호가 수시로 출항한다. 차량 선적도 가능하다.

정혜윤 PD가 추천하는 〈톨스토이, 도덕에 미치다〉

겨울밤 이야기를 부둥켜안고…

라디오는 귀로 들어야만 한다. 책은 눈으로 읽어야만 한다. 라디오와 책은 청각과 시각이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한다. 그러나 이 둘에는 접점이 있다. 바로 들으면서, 읽으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상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라디오와 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그 점에서 정혜윤 CBS 라디오 PD(40)에게 '지독한 독서가'라는 수식어는 너무도 잘 어울린다.

그는 〈시사자키〉 〈신지혜의 영화음악〉 등 여러 프로그램을 담당한 17년차 베테랑 라디오 PD다. 그러나 갓 입사했을 때만 해도 내성적인 성향에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려웠다. 그는 직업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책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상대방과 책 이야기를 통해 좀 더 쉽고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후 그는 〈침대와 책(2007)〉 〈그들은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되었다(2008)〉 〈런던을 속삭여줄게(2009)〉 등 독서와 관련된 책을 펴냈다. 또한 신문사, 출판사에 책 관련 칼럼을 쓰면서 자신이 책 속에서 읽었던 무수한 이야기들을 수많은 독자들에게 전달하며 소통하고 있다.

정혜윤 PD는 "책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어렵게 익을수록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런 그가 추천한 책은 '대문호'라 불리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를 분석한 석영중 교수의 〈톨스토이, 도덕에 미치다〉다. 정 PD는 "흔히 '고전' 하면 학창시절 교과서에 실려 발췌된 부분만 읽었거나 논술을 준비하기 위해 억지로 읽은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예전 세기의 작가들이 끊임없이 고뇌하며 쓴 글이기 때문에 다시 찬찬히 읽다 보면 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책 속의 고민이 바로 내 삶의 고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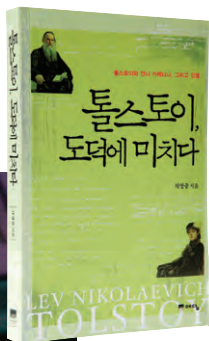
"〈안나 카레니나〉에는 불륜 커플인 안나와 브론스키, 힘들게 결혼했지만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는 레빈과 키티라는 두 커플이 등장하죠. 톨스토이는 대조적인 커플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결혼'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요. '결혼은 정말 해야 되는 걸까' '결혼한 다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어쩌지'처럼 말이죠. 이처럼 삶의 고민을 함께할 수 있고 삶이 변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책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확이죠."

석 교수의 책은 〈안나 카레니나〉를 축으로 삼은 일종의 톨스토이 해설서다. 톨스토이는 50세 이후에 철저히 금욕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을 추구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작품을 내놓았다. 그렇기에 49세 때 나온 〈안나 카레니나〉는 톨스토이가 쓴 90여 권의 책들 중에서 과도기의 톨스토이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책이다.

"전 톨스토이를 무시무시한 천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하는 고민들을 소설로 형상화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의 고민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요. 책 속에 나타나는 고민들을 나의 고민들과 연결시켜 스스로 논쟁도 붙여보고 다양한 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즐거운 고전 읽기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정 PD는 인터뷰 전날 밤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의 주인공 오바 요조를 생각하며 잠 못 이뤘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최근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코맥 매카시의 〈국경을 넘어〉라는 이야기까지 무수한 책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꼭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어떤 책이든 쉽게 읽은 책은 기억에 남지 않아요. 책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부둥켜안고 고민하면서 어렵게 읽어야만 언제 어디서든 그 책이 가슴속에 남을 수 있답니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개국공신의 손자 '초고속 승진열차' 티켓?

일러스트 · 이우정

1420년(세종 2년) 경자식년시(庚子式年試 · 3년마다 행하는 문과)의 장원급제자는 여말선초의 명문가 순흥 안씨 집안의 안숭선(安崇善)이었다. 안숭선은 조선이 개국하던 1392년생이므로 이때 스물아홉이었다. 할아버지 안경공(安景恭)은 개국공신이었고 아버지 안순(安純)은 당시 호조참판이었다.

이런 배경으로 말미암아 안숭선은 원래 문음(門蔭 · 공신 후손의 자격으로 관직에 진출)으로 관직의 길에 들어섰다. 실록에서도 "총명하고 출중했다"고 밝힐 정도로 업무 능력이 탁월했고 용모나 성품 또한 "뛰어나게 잘나고 호방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문과 급제 전에 이미 정6품 사헌부 감찰(監察)로 일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그는 장원급제 후인 1420년 3월 22일 감찰보다 두 등급 위인 정5품 사헌부 지평(持平)에 제수된다. 시작부터 '고속 출세'인 셈이다.

하지만 신언서판(身言書判 · 관리 등용의 기준으로 삼았던 몸, 말씨, 글씨, 판단의 네 가지)을 두루 갖춘 안숭선 역시 장원급제자 특유의 치명적 단점도 갖고 있었다. 매사에 자신만만해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에 대한 호불호(好不好)가 너무 분명했다.

급제 6년 만인 1426년 안숭선은 정4품 사헌부 장령(掌令)에 제수된다. 다시 2년 후인 1428년 세종은 안숭선을 종3품 사헌부 집의(執義)로 임명한다. 집의는 종2품 대사헌(大司憲) 바로 아래로 핵심 요직 중 하나다. 안숭선은 '견사풍생(見事風生)', 일을 보면 그것을 풀어가는 재주나 의견이 바람이 일듯 끊임없이 나온다는 말로 세종이 좋아했던 인재 유형 중 하나였다.

그리고 다시 2년 후인 1430년(세종 12년) 8월 22일 안숭선은 승정원 동부대언(同副代言 · 6승지 중의 막내)이 되는데, 품계는 지신사(知申事 · 도승지)와 같은 정3품 당상관이었다. 같은 날 황보인(黃甫仁)은 지신사, 김종서(金宗瑞)는 우대언에 제수됐다. 안숭선보다 두 살 위인 김종서는 태종 5년(1405년) 문과에 급제했으니 안숭선이 15년의 '갭'을 하루아침에 거의 따라잡은 것이다.

김종서로서는 더 치욕적인 일이 6개월 만인 1431년 2월 29일 일어난다. 안숭선을 지신사로 임명한 것이다. 품계는 같았지만 역할을 따지면 이제 김종서가 안숭선 아래에 놓이게 됐다. 세종 15년에 세종은 청와대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승정원 지신사(知申事)를 도승지(都承旨)로 개칭하는데 바로 안숭선이 지신사였다가 도승지로 바뀌게 되는 주인공이다.

이후 1435년 2월 5일 어머니의 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할 때까지 4년 동안 안숭선은 세종의 최측근으로서 북방영토 개척을 비롯해 의욕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던 세종을 '특급 보좌'했다. 실록은 그가 도승지로서 왕명을 출납함이 "공명하고 진실하였다"고 평한다.

안숭선, 15년 차이 하루아침에 뒤집는 파격인사도

모친상(母親喪)을 마친 안숭선은 다시 대사헌으로 복귀해 공조참판과 경기도관찰사 등을 거친 다음 1445년(세종 27년) 병조판서에 임명된다. 반면 김종서는 북진 개척의 공을 인정받아 안숭선보다 5년 빠른 1440년 형조판서에 올랐다. 김종서의 모진 고생에 대한 보답인 셈이다.

두 사람은 사헌부나 승정원에서 함께 일할 때부터 어긋나는 사이였다. 1448년에는 병조판서로 있던 안숭선이 정실인사(情實人事)를 했다는 이유로 유배를 가게 된다. 얼마 후 세종이 오해를 풀어 풀려나게 되지만 그 배후에 김종서가 있었다는 것이 조선 성종 때의 문신 성현의 해석이다.

세종 말 우의정에 오르고 문종 때 좌의정을 지내며 단종 때 최고의 실권을 쥐게 되는 김종서와 달리 안숭선은 문종 때 참찬(參贊 · 의정부의 정2품직)에 올랐다가 세상을 떠났다. 참찬은 좌우찬성(贊成 · 종1품)을 거쳐야 우의정에 오를 수 있었으니 김종서보다 여러 단계 아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종서 또한 수양대군과의 투쟁에서 패해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된다. 안숭선과 김종서, 누가 현실의 승자이고 또 역사의 승자일까? G

김진태·이태원의 뮤지컬 〈명성황후〉

14년 롱런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

일시	12월 28일(월)까지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7시, 일·공휴일 오후 2시, 6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11만원, R석 9만원, S석 7만원(12월 15일부터 1만원씩 추가)
문의	1588-7890 www.ntok.go.kr

창작 뮤지컬의 선두주자인 '명성황후'가 지난 11월 28일 국내 대형 창작 뮤지컬 사상 최초로 1천 번째 공연을 올렸다. 이로써 공연 14년째를 맞은 '명성황후'는 또 한 번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이처럼 '명성황후'가 오랫동안 꾸준하게 사랑을 받아온 비결은 해마다 거듭된 작품의 질적 성장과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작품성을 들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 스펙터클한 무대 연출 등도 가족단위 관객을 끌어모으는 데 힘을 보탰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14년 동안 '명성황후'를 이끌어온 오리지널 배우들과 함께 새로운 배우들이 관객을 맞이하는 것이다. 특히 대원군 역은 올해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김진태가 맡아 극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뮤지컬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배우로 꼽히는 김진태는 "대원군의 위엄을 살리기 위해 안정적이고 중후한 톤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동안 '명성황후'가 쌓아온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작품에서 새롭게 미우라 역을 맡은 임철형과 김선동도 주목해야 할 배우다. 임철형은 뮤지컬 '이블 데드' '펌프 보이즈', 연극 '아일랜드' '레인맨' 등을 연출하고, 뮤지컬 '카페인' '내 마음의 풍금' '첫사랑' '벽을 뚫는 남자' 등에 출연한 재주꾼이다. 연출가와 배우로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임철형은 이번 작품에서 카리스마로 무대를 장악하는 미우라 역으로 연기 변신에 성공했다.

MBC 19기 탤런트 출신으로 미우라 역에 더블 캐스팅된 김선동은 '명성황후'의 숨은 보석으로 꼽힌다. 연출가 윤호진 씨는 "김선동 씨는 미우라의 절제된 대사와 노래를 적절하게 표현해내며 극의 몰입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고 평했다.

또한 명성황후 역을 번갈아 맡은 이태원과 조안나는 무대를 압도하는 파워풀한 연기를 선보인다. G

글·김지영 기자

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롤'

일시	12월 19일(토)~31일(목) 화~토요일 오후 3시, 7시 30분, 일요일 오후 3시, 7시(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서울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옛 역도경기장)
관람료	VIP석 7만원,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의	1588-5212 www.spac.or.kr

2003년 서울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에서 시작된 서울예술단의 창작뮤지컬. 단순히 공연만을 선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구세군 모금활동까지 함께 해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공연이라는 점에서 매년 겨울마다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초연부터 지금까지 줄곧 스크루지로 관객을 만난 배우 박석용은 극의 완성도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올해 공연에는 아역배우 왕석현이 팀 역으로 새롭게 참여해 재미를 더한다.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시	12월 16일(수), 28일(월) 오후 8시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VIP석 16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문의	02-541-6235 www.sac.or.kr

세계를 무대로 활약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이 1999년 이후 10년 만에 펼치는 바이올린 리사이틀 투어의 일환이다. 놀라운 음악적 통찰력과 탁월한 기량, 풍부한 감수성을 지닌 사라 장은 이번 공연에서 브람스의 '단악장 소나타'와 '바이올린 소나타 3번', 테오파니디스의 '판타지',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선보인다. 이번 리사이틀 투어는 서울을 비롯해 안산, 대전, 창원, 수원, 전주, 광주, 구미, 의정부, 제주 등 10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대한민국의 4번째 도약이 여수에서 시작 됩니다!

(단위 : 달러)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1988년 서울 올림픽
희망과 자신감

1993년 대전 엑스포
도약과 IT강국기반

2002년 한·일월드컵
기적과 IMF극복

2012년 세계박람회
감동 그리고 신도약

1988 1993 2002 2012

21세기 신해양 녹색경제, 2012 여수세계박람회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88년 서울 올림픽! 첨단 과학과 IT의 나라로 만든 93년 대전 엑스포!
온 국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2002년 한·일 월드컵! 세계인의 축제는 언제나 우리가 도약하는 기회였습니다
전세계 100여개국, 800여만명의 관람객과 함께 열어가는 4번째 도약의 기회 2012 세계박람회
환경과 경제, 미래가 숨을 쉬는 큰 바다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의 경제가 시작됩니다

크고 작은 홍수를 겪었습니다

속타는 가뭄도 만났습니다

은어가 펄떡이는 강은

옛날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더러워진 강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살리지 않는다면,

이 이야기는 자손 대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행복4江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4대강살리기추진본부